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s
on Residents' Sense of Social Cohesion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전공
양 승 호

국문초록

한국 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과 경제위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갈등의 정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양상 중에서도 계층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갈등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도시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주택이나 거주지역 자체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계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가 도시민의 계층갈등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도시민의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여 거주민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도시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혼합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혼합 정책이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현황을 교육수준을 대리변수로 실증분석한 결과, 서울시에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소득수준의 공간 집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차원에서 공간 집적의 변화 양상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간 집적의 변화 양상은

서로 독립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시적 차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변화가 없거나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정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공간 지표와 공간 지표를 모두 구성하였다. 비공간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입지 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공간의 내부 소득수준 분포를 측정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을 범주화시키는 방식과 소득수준의 분산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입지 패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즉 공간의 집적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공간 지표의 경우 분석의 기본단위로 설정한 공간 범위인 근린 내부에서의 집적 정도와 외부 근린끼리의 집적 정도를 모두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계층갈등과 사회통합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 거주민의 계층갈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층의식과 타 계층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계층위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주관적 평가, 타 계층 사람에 대한 태도의 3가지로 범주화시켰다.

변수 측정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지역별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사용하였고,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94개 행정동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583개의 유효샘플 중에서 상세한 거주지 주소 정보가 부족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행정동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은 샘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57명의 샘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의식 변수가 모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기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주관적 계층별 기준으로 층화분석과 t-test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거주지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심할수록 거주자는 자신의 주관적 계층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가 계층의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개인의 평가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 정도가 심할수록 거주민이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가 심할수록 개인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정도나 계층 대물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을 기준으로 수행한 층화분석 결과, 주관적 하층민이 주관적 중·상층민보다 거주지 분리에 의해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근린 내부 주민들의 소득수준 분포가 균등할수록, 즉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근린에 사는 사람일수록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계층을 기준으로 한 층화분석 결과 그러한 영향은 주관적 하층민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관용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층화분석 결과, 주관적 하층민에게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심하거나 거주민 소득수준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근린에 사는 주관적 하층민은 타 계층 사람에 대한 관용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계층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한 t-test 결과, 주관적 계층위치가 높을수록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영향이 특히 주관적 하층민에게 크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로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었던,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와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의 사회적 혼합 정책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 측면의 정책적 함의도 이끌어냈다고 본다.

주요어: 거주지 분리, 사회통합의식, 사회적 배제, 사회적 혼합

학번: 2009-20950

〈차례〉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2.1. 연구의 범위	6
1.2.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	9
2.1. 도시공간의 분리와 대책	9
2.1.1. 도시공간의 분리	9
2.1.2. 도시공간의 분리 현황 및 대책	27
2.2.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의식	38
2.2.1. 계층갈등과 계층의식	38
2.2.2. 사회통합의식	40
2.3. 소결	46
III. 분석의 틀	49
3.1. 연구문제 설정	49
3.1.1. 선행연구 검토	49
3.1.2. 연구의 차별성	54
3.1.3. 연구문제 설정	56
3.2. 연구 대상지 및 분석자료	60
3.2.1. 연구 대상지 선정	60
3.2.2. 분석자료	61

3.3. 주요변수 측정 방식	67
3.3.1.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 측정 방식 선정	67
3.3.2. 소득수준 추정식 도출	70
3.4. 분석모형 설정	74
3.4.1. 변수 구성	74
3.4.2. 분석모형	85
IV. 분석 결과	86
4.1.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주관적 계층 평가에 미치는 영향	86
4.2.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사회계층구조 인식에 미치는 영향	90
4.3.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타 계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97
4.3.1. 타 계층에 대한 신뢰 모형	97
4.3.2. 타 계층에 대한 관용 모형	103
4.4. 소결	109
V. 결론	112
5.1. 연구결과 요약	112
5.2. 연구 의의와 정책적 함의	115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9

〈표 차례〉

<표 2-1> 서울시 전체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	31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의 평균	33
<표 2-3> 주요 연구별 사회통합의 정의 및 측정지표	42
<표 2-4> 주요 사회통합지표의 내용	44
<표 2-5>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의 측정 방식 및 지표	47
<표 2-6>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	48
<표 3-1> 설문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65
<표 3-2> 변수 구성 및 측정지표	71
<표 3-3> 소득추정 모형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73
<표 3-4> 주관적 계층 변수 기술통계	74
<표 3-5> 사회계층구조 변수 기술통계	75
<표 3-6> 타 계층에 대한 태도 변수 기술통계	76
<표 3-7>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관련 변수 기술통계	78
<표 3-8>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 변수 기술통계	79
<표 3-9> 소득수준의 편차 정도 변수 기술통계	79
<표 3-10>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관련 변수 기술통계	81
<표 3-11> 변수 정의 및 측정지표	84
<표 4-1> 주관적 계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9
<표 4-2> 사회계층구조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2
<표 4-3> 주관적 계층별 사회계층구조 인식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93
<표 4-4> 사회계층구조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5
<표 4-5> 사회계층구조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6
<표 4-6> 타 계층 신뢰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8
<표 4-7> 주관적 계층별 타 계층 신뢰 정도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99
<표 4-8> 타 계층 신뢰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1
<표 4-9> 타 계층 신뢰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2
<표 4-10> 타 계층 관용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4

<표 4-11> 주관적 계층별 타 계층 관용 정도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105
<표 4-12> 타 계층 관용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07
<표 4-13> 타 계층 관용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8
<표 4-14>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합	11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8
<그림 2-1> 체커보드 문제	14
<그림 2-2> 비공간 지표 - 범주화 측정(균등도 측정) 방식 개념	17
<그림 2-3> 비공간 지표 - 분산 측정 방식 개념	17
<그림 2-4> 공간 지표 -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 개념	18
<그림 2-5> 거주지 분리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23
<그림 2-6> 근린효과의 다차원 모형	26
<그림 2-7> 서울시 전체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	31
<그림 2-8>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의 평균33	
<그림 3-1> 연구문제의 개념도	59
<그림 3-2> 설문 대상지 선정 기준	66
<그림 3-3> 최종 선정 대상지 및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 위치	66
<그림 3-4> 거주지별 근린 설정 방식	77
<그림 3-5> 근린 내·외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측정	78
<그림 3-6> 공간 분리 측정지표 사이의 관계	82
<그림 4-1>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합	111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고도의 압축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계층 간의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최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9). 첨예화된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동시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촉발시키고 있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갈등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모적이고,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된다.

증폭된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준(2009)의 발표에 따르면 한 사회의 갈등지수가 10% 하락하게 되면 국민 1인당 GDP가 1.8~5.4% 증가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컨트롤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로는 고속성장과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에서 1세기에 걸쳐서 진행시킨 산업화, 도시화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면서 국민소득의 절대적 증가를 이루었으나, 사회계층 간 부의 편중과 상대적 빈곤감 등의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윤인진, 1998).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진행된 경제의 재구조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Parkinson, 1998). 이와 관련해서 임석희·이용우(2002)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상인(2008)은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 이후에 성장이 정체하고 사회적 양극화 수준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사회가 분열되고 공동체의식이 와해된 현실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층갈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상규(2012)에 의하면 5년 단위로 국민들의 갈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의식은 상승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갈등 유형별로는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부문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신욱 외(2012)에 따르면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2.1%였고, 심하지 않다는 비율은 겨우 2.3%였다. 그리고 경실련의 공공갈등 의식 조사 결과,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 비율이 86.1%였다(윤보람, 2013).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2년에 전국 대학교수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로 복지, 사회통합, 양극화가 1~3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 실시되었던 유사 설문조사에서 사회통합과 양극화 이슈가 각각 4위와 13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근래에 들어서 사회통합, 양극화에 대한 이슈가 크게 증폭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황경상, 2012).

그렇다면 계층갈등이 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경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갈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지니계수의 변화 양상은 그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도시공간이 계층갈등 심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본의 집중과 그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인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윤인진, 1998).

계층 간의 불평등은 현상학적으로 볼 때 소비의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의 소유 여부 및 규모, 주거지역 등은 계층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지표이다(선주형, 2004).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라는 사회적 과정은 ‘거주지 분리 심화’라는 공간적 과정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최은영, 2004).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는 사회적 계층성을 고착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심각한 문제이다(홍성조·안건혁, 2011).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노대명 외, 2009).

한편 정부에서도 2009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심화되는 사회분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누적되어온 것으로서, 단순히 한 분야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간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수행된 기존의 정책으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혼합이라는 개념은 특정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주로 근린이나 주택단지 차원에서의 혼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혼합 정책이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적 혼합 단지로 계획된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계층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가 도시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1.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 사이의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전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은 세부 목적에 따른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여 분리의 다양한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측정한다. 그리고 계층갈등과 사회통합 개념을 검토하여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의식을 추출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에 있어서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계층의 위치에 따라서 사회통합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계층의 위치에 따라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주지 분리에 대응하는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공간적·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다양한 공간단위에서 논해질 수 있다. 좁게는 공동주택 단지나 근린 내부에서의 분리일 수도 있으며, 넓게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분리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거시적 측면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거주지 주변의 근린을 주요 관심이 되는 공간 규모로 설정하였다. 근린 규모를 설정한 이유는 근린 자체가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환경의 특성이 주민들에게 체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 범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린을 거주지 주변 500m 반경 내의 지역 혹은 거주하는 행정동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린이 외부 다른 근린과 가지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한 단계 상위의 공간범위는 자치구 규모로 보았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지는 서울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소득 혼합 정도, 주택 혼합 정도 3가지 기준을 측정하였고, 이 기준들의 차이가 명확한 곳을 중심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94개 행정동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도시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 측정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이다. 분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자료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통계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민의 사회통합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에 수행되었다.

1.2.2. 연구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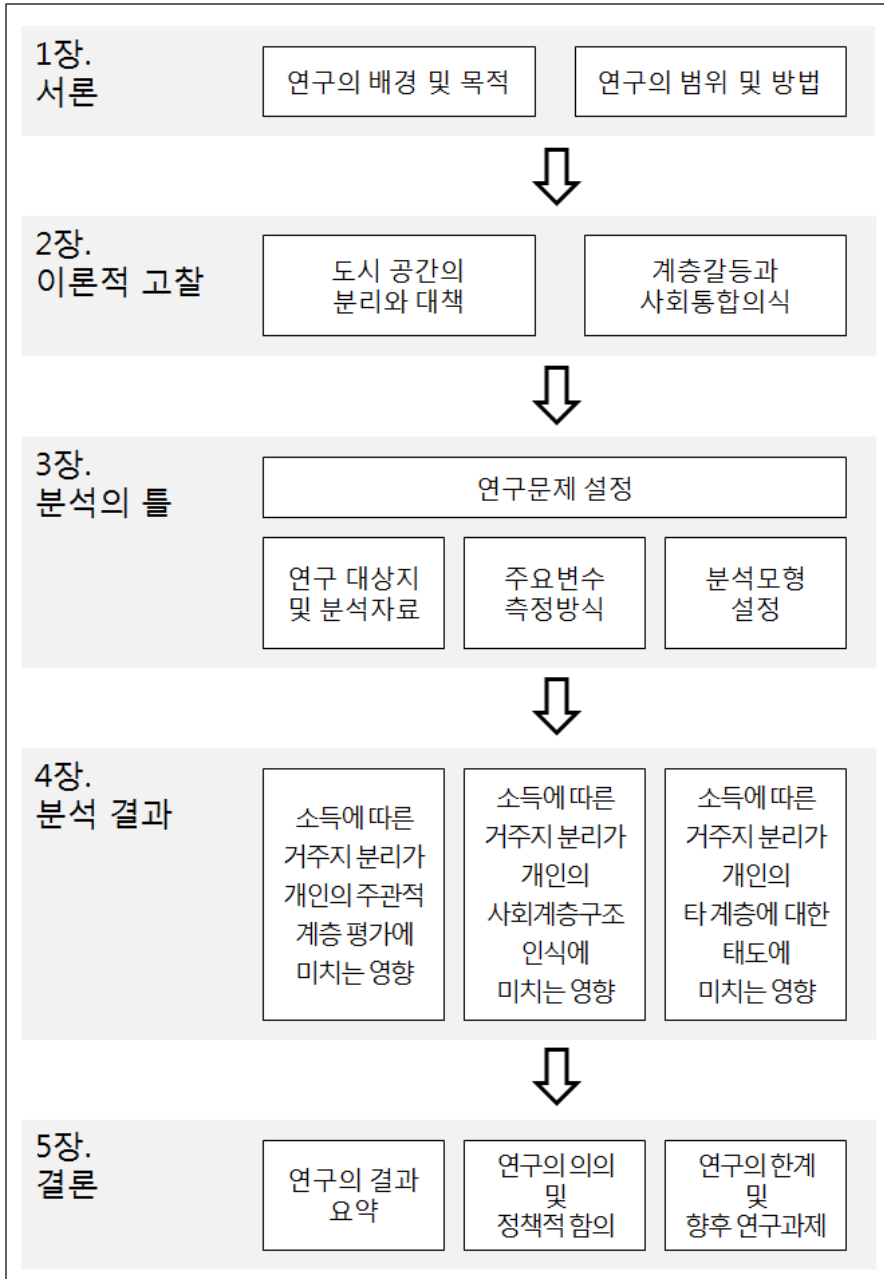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관련 현황을 분석해 본다.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계층갈등 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도서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의 분리 양상을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3장에서는 4장의 본 분석에 앞서서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2장의 이론적 고찰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구조를 결정한다. 주요 변수 측정을 위한 자료의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역별 평균 소득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변수를 구축한 후 변수들의 특성에 맞춰서 최종적인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수행한다. 설문자료의 특성에 맞춰서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고,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세부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t-test와 층화분석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지는 의의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 후,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

2.1. 도시공간의 분리와 대책

2.1.1. 도시공간의 분리

1) 도시공간 분리의 개념 및 원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 교육,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주지역이나 주택 유형 등의 차별화는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집이란 과거처럼 생존에 필요한 필수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선주형, 2004).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이나 계층갈등의 양상은 특히 도시에서 공간적으로 드러나며, 도시를 매개로 하여 그러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거주지역과 주택 유형에 차이가 생겨나며,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가 도시 차원에서의 계층 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다(선주형, 2004).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고려하는 조건의 우선순위나 제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인구집단의 거주지가 다른 집단의 거주지와 분리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최은영, 2004).

따라서 일정 수준의 거주지 분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거주지 분리 현상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자체만으로 안 좋은 현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거주지 분리를 통해 표면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실제로 거주지 분리 현상의 심화는 199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최은영, 2004).

한편 거주지 분리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도시지리학, 도시경제학, 도시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였다(홍영림, 1993; 도경선, 1994; 윤인진, 1998; 선주형, 2004; 배순석 외, 2006). 연구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 내의 거주지 분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도시생태학적 접근,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 관리주의적 접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도시생태학적 접근은 도시사회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거주지 분리와 관련된 최초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1920년대 시카고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홍영림, 1993; 도경선, 1994; 선주형, 2004). 도시 내에서의 토지 이용을 경쟁, 침입, 계승, 격리와 같은 생태학적 과정들로 설명하면서(윤인진, 1998) 거주지 분리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즉, 침입과 천이라는 생태계의 경쟁원리를 도시 거주민에게 적용하여 거주민의 주거비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해 거주지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도경선, 1994).

도시생태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 이론 등이 있으며, 집합적인 주거 입지 패턴과 분리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홍영림, 1993). 하지만 도시생태학적 접근은 지역 상황과 성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떤 집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곳에 입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주지 분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홍영림, 1993; 선주형, 2004).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주택의 입지가 도심에 대한 접근성과 주거환경 사이의 교환에 의해 결정된다(윤인진, 1998)고 보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정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예산 안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계층별로 주택의 입지가 다르게 선택된다. 고소득 가구는 높은 통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교외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통근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도심 근처에 거주하게 된다(윤인진, 1998).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소득계층끼리 인접하여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 가구들의 입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소득계층 간에 어느 정도의 거주지 분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배순석 외, 2006).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은 도시 내에서의 거주지 분리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단핵도시, 완전경쟁상태,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 가정의 비현실성 문제로 비판받았으며, 수요 부문에서의 입지 선택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택과 주거지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공급 측면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시의 거주지 분리를 설명하는 데에 약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홍영림, 1993; 도경선, 1994).

앞서 살펴본 도시생태학적 접근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이 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면, 관리주의적 접근은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주의적 접근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도시 자원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균등하게 공간상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자원의 분배과정에서의 불평등은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공무원,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업자 등의 도시 관리자들이 정책 개입을 통해 주요한 자원분배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거주지 분리에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홍영림, 1993; 윤인진, 1998).

실제로 도시 관리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서 용도지역제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들 수 있는데, 이 계획하에서 주거지역의 입지가 결정되며,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택의 유형, 밀도 등이 구체적으로 제한된다(배순석 외, 2006). 그렇기 때문에 도시 관리자들이 거주지 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관리주의적 접근은 기존 수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시 개발 및 관리에 영향을 주는 공급 측면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도시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홍영림, 1993)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도시의 거주지 분리 원인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로는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에서는 도시의 공간구조가 자본의 순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와 건설자본의 힘이 자본의 축적과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거주지 분리를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윤인진, 1998). 즉, 거주지 분리를 일으키는 원인은 개별 가구의 선호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이다(도경선, 1994).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전통적 도시연구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거시적 이론 틀

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논의만이 강조되었을 뿐, 도시의 공간구조나 거주지 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홍영림, 1993).

지금까지 도시공간, 특히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이론을 크게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도시생태학적 접근,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 관리주의적 접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접근들의 설명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속에서 어떠한 접근이 정답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구조나 거주지 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이론들의 논리를 종합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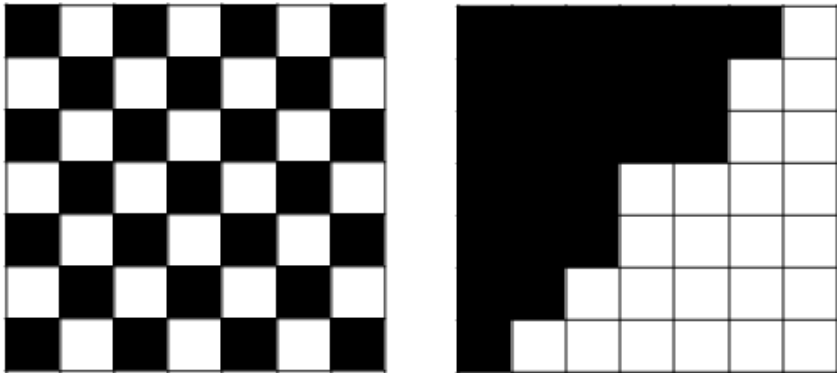
2)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측정방식

도시민의 거주지 분리 및 거주 집단 사이의 분리와 관련된 연구는 도시 분야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거주 집단 사이의 분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Massey and Denton(1988)은 그러한 흐름을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거주 집단 사이의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0개 주요 지표를 균등도(Evenness), 노출도(Exposure), 집중도(Concentration), 중앙화 정도(Centralization), 집적도(Clustering)의 5가지 개념으로 분류한 후,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재분류 및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¹⁾ 여기에서 활용된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서구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지표로, 주로 인종이나 민족 집단 사이의 분리를 측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 함께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 작업도 많

1) 5가지 차원의 분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인진(1998)과 최은영(2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루어졌다. 특히 분리 정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된 상이지수 D (dissimilarity index)는 여러 측면으로 개선되어왔다. 우선 초기 2개의 집단에만 적용이 가능하던 지수는 2개 이상의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리고 공간의 근접성 등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체커보드 문제²⁾는 세부 공간끼리의 인접 길이 등을 반영한 $D(w)$ 등의 지수 개발을 통해 개선되었다. 상이지수는 공간 내에서의 분리를 다루고 있지만 공간의 근접성과 같은 공간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공간 지표로 간주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2-1> 체커보드 문제

2) 체커보드 문제는 분리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공간의 근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공간 지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한 사례이다. <그림 2-1>을 보면 두 경우 모두 흑과 백의 비율이 동일하여 비공간 지표의 대표적인 지수인 상이지수를 계산하였을 때 동일한 분리 정도로 측정된다. 하지만 흑과 백의 입지 패턴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공간의 입지 특성 등이 반영된 공간 지표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지표들은 주로 인종이나 민족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소득과 같이 연속적이거나 순서가 정해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Watson(2009)은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연속변수 차원에서 그 분리 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종이나 민족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측정 지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에 대해서는 Reardon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Reardon(2011)에 의하면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측정 방식은 크게 범주화 측정 방식, 분산 측정 방식, 공간적 자기상관³⁾ 측정 방식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주화 측정 방식과 분산 측정 방식은 비공간 지표에 해당되고,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은 공간 지표에 해당된다.

범주화 측정 방식은 소득수준을 ‘저소득’, ‘고소득’ 등과 같이 범주화 해서 기존 분리 측정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속변수로 측정되는 소득수준을 이산변수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분리 측정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균등도 측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이지수, 엔트로피 지수, 허쉬만-허핀달 지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균등도가 낮게 측정될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의 분산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속변수로 측정된 소득 수준 변수들의 분산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단위지역별로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측정되면 지역별 소득수준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지역별 소득수준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분산 수준이 크게 측정될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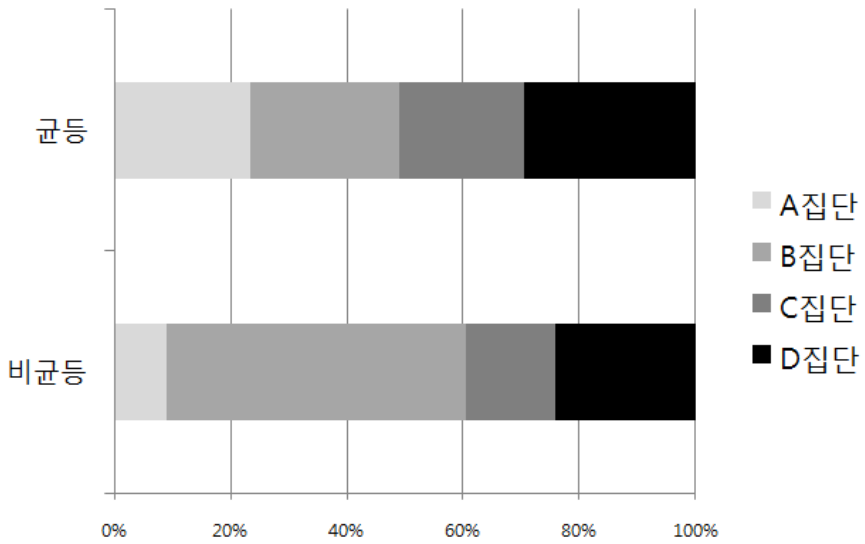
3) 한 변수에 대해서 공간 단위들 사이에 기능적 관계 혹은 함수적 관계가 존재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한다(최은영, 2004).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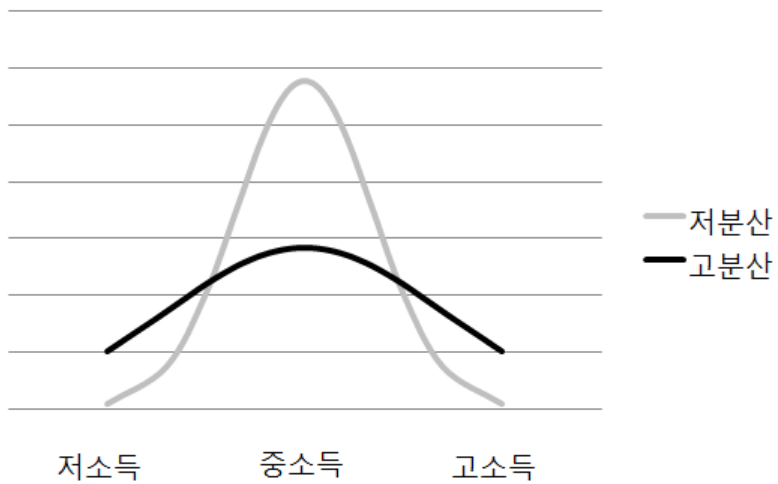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간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근접한 공간들끼리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계산한다. 서로 근접한 지역에서 특정 소득수준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간의 집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집적 정도가 심할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수로는 Moran's I 지수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 공간 지표와 비공간 지표를 모두 다 활용할 것이다. 비공간 지표에서는 범주화 방식과 분산 측정 방식을 모두 선택하여, 여러 소득계층의 균등도와 그들 사이의 소득편차를 측정하도록 한다. 공간 지표에서는 Galster et al.(2010)의 근린 내·외부 메커니즘과 Friedrichs et al.(2003)의 공간 위계에 따른 설명에 근거하여 단위가 되는 공간의 내·외부 소득집적 정도를 모두 측정하도록 한다.⁴⁾

4) 이와 관련해서는 2.1.1.의 3)에서의 근린효과 이론에 대한 정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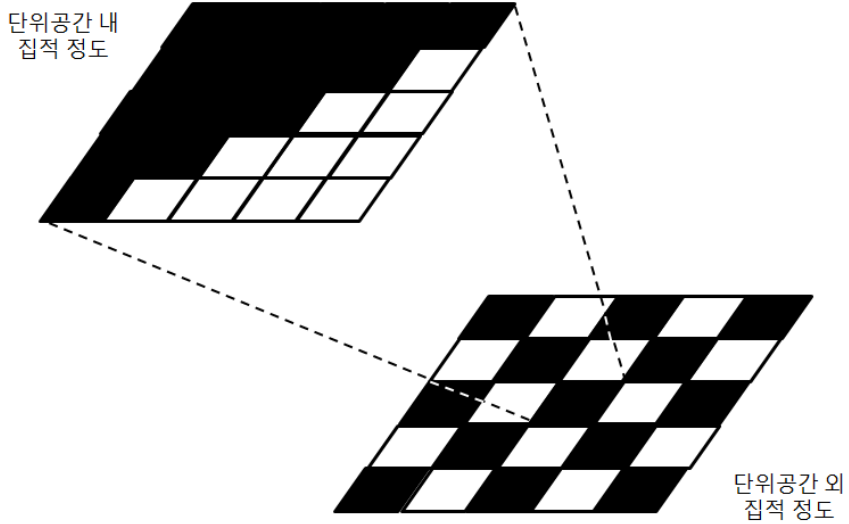
<그림 2-2> 비공간 지표 - 범주화 측정(균등도 측정) 방식 개념 ⁵⁾



<그림 2-3> 비공간 지표 - 분산 측정 방식 개념 ⁶⁾

5) <그림 2-2>에서처럼 집단별로 비율이 비슷한 경우는 균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집단별 비율에 차이가 클 경우는 균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6) <그림 2-3>는 소득수준의 분산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소득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2-4> 공간 지표 -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 개념 ⁷⁾

7) 단위공간을 설정한 후 그 내부와 외부로 기준으로 소득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한다. <그림 2-4>의 경우 단위공간 내부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여 소득 수준별 공간의 집적이 있지만, 단위공간 외부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 즉 소득수준별 공간의 집적이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

3) 도시공간 분리의 영향

사회계층별 공간 분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아직까지 서구 도시만큼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서구 도시들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공간적 분리가 이슈가 되고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의 공간적 분리, 특히 거주지의 분리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문제를 경험한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Bolt et al.(1998)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거주지 분리로 인한, 특히 저소득층 혹은 특정 인종의 공간적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거주지 분리로 인해서 거주민의 취업 기회 박탈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거주 동네의 규범적 측면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정치적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주거환경의 질 또한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Ross et al.(2004)은 소득에 따라 거주지가 분리되었을 때, 빈곤층 집중 지역에서는 거주환경이 주는 사회·심리적 낙인효과와 차별감 등에 의해서 개인의 취업 기회 제한, 높은 범죄율, 교육수준 하락, 높은 사망률, 지자체의 자원 부족, 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Bolt et al.(1998)과 Ross et al.(2004)에 의해서 지적된 거주지 분리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여기에 적합한 개념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로 활용되었고 발상지인 유럽을 중심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Silver, 1994; Levitas, 1998; Watt and Jacobs, 2000; 배순석 외, 2006). 사회적 배제는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EU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Moffatt and Glasgow, 2009).

사회적 배제는 개념적으로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차원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Silver, 1994). 여러 연구자들이 사회적 배제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종합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빈곤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개인, 가족, 크게는 특정 지역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특정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Burchardt et al., 1999; Byrne, 1999; Barnes, 2005; 배순석 외, 2006; Levitas et al., 2007; Pierson, 2010).

사회적 배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서구를 중심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의 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 Social Exclusion Unit은 영국에서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설된 기구이다. Social Exclusion Unit(2001)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교육의 부족, 저임금, 공공 서비스의 부족, 개인의 스트레스, 보건 문제, 자녀세대로의 영향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통

합 저해, 범죄율 증가, 계층 이동의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직 가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 10대 임신율, 마약 복용자 비율, 범죄율 등을 지표로 활용하여서 사회적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한편 사회적 배제로 인한 문제 중에서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측면에 주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Granovetter(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취업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빈곤층이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겪는 사람은 근린지역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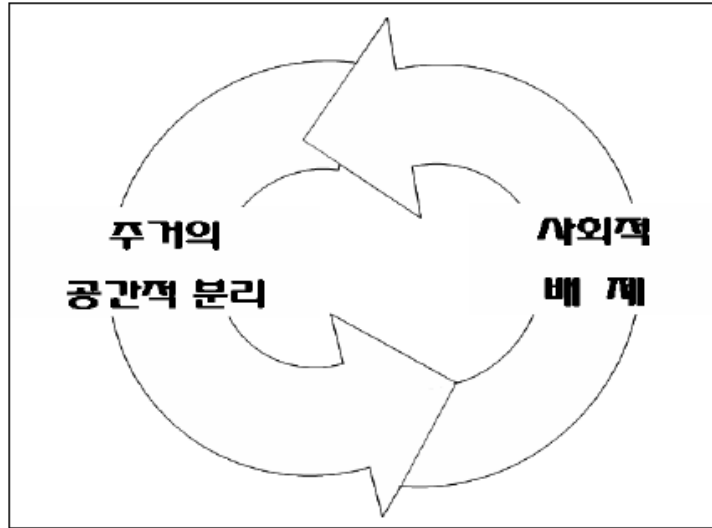
또한 Bayram et al.(2012)은 터키 시민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는 여러 차원의 삶의 질과 여러 차원의 사회적 배제 간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물질적인 궁핍이 환경적 측면과 사회관계적 측면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걸쳐서 근린효과를 일으킨다는 점과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 순환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Buck, 2001; Gingrich, 2008; Abe, 2009). Buck(2001)은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한 근린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변수 역시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비화폐적 빈곤 점수, 취업에 대한 기대, 취업자 친구 등의 종속변수들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의 특성이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배제가 근린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Abe(2009)는 빈

곤과 사회적 배제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배제로부터 취약한 인구계층이 꼭 소득 빈곤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소득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단순히 같은 개념은 아닌데도 어린 시절의 빈곤이 성장 후의 사회적 배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적 배제가 세대를 걸쳐서 반복 순환된다는 특징을 밝혀내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의 분리와 사회적 배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빈곤계층의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배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빈곤계층의 공간적 집중이 일어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이러한 지역에는 충분한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공공서비스 개선 및 투자 등 각종 기회의 결핍이 증가하여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게 된다(김주진, 2008).

그리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는 거주지의 분리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거주지 분리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가 공간적으로 표면화되는데,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종의 공간 상품으로 인식되어 가치가 더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되어 분리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배순석 외, 2006).



<그림 2-5> 거주지 분리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배순석 외, 2006, p.16)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혀낸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국내 연구는 주로 공공임대주택 밀집 단지를 대상으로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소외감과 배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성규·서종녀, 2006; 김주진, 2008; 박관민 외, 2011). 이렇듯 국내 연구에서는 서구의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도시의 거주지 분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근린효과

소득에 따른 도시공간의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논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론이 필요하다. 여기서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근린효과 이론이 활용될 수 있다.

근린은 거주민들이 포함된 환경과 근접성을 공유하는 지리적 단위로 공간적인 개념이다. 근린은 더 큰 지역의 하부단위이며 주로 개인의 거주지역에서 고려된다(Chaskin, 1997). 근린효과는 우선적으로 빈곤과 풍요의 공간적 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넘어서서 개인의 행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곽현근, 2007).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을 지닌, 빈곤이 집중된 근린의 환경이 그곳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Wilson(1987)의 연구가 나온 이후로 미국에서는 근린효과에 대한 관심과 실증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거주지 분리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언급한 Bolt et al.(1998)의 연구도 근린효과 연구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린효과 메커니즘, 즉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인해 근린의 환경이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Galster et al.(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근린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근린효과 메커니즘을 총 7가지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세부 메커니즘이 서로 연계되어 근린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Galster et al.(2010)은 근린효과를 근린 내부 메커니즘과 외부 메커니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근린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다룬 근린 내부 메커니즘을 내부 사회화, 내부 네트워크, 내부 무질서, 내부 경쟁의 4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내부 사회화의 경우 롤 모델 효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린 내부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롤 모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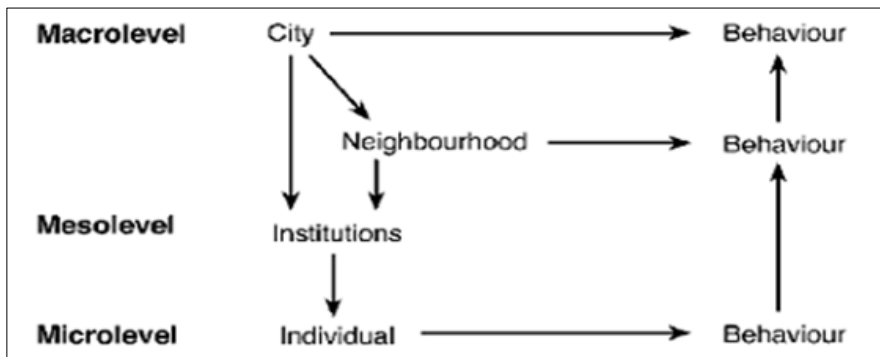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내부 네트워크의 경우 근린 안에서의 이웃관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내부 무질서는 근린환경의 무질서 정도에 따라 개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고, 내부 경쟁은 자녀 교육과 같은 문제에서 근린 내부의 경쟁적인 분위기의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근린끼리의 영향을 나타내는 근린 외부 메커니즘은 낙인효과, 시설 및 서비스 자원의 영향, 접근성의 문제 3가지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낙인효과는 특정 근린 자체가 외부의 다른 근린들과 비교하여 가지게 되는 평판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부정적인 평판을 말한다. 시설 및 서비스 자원의 영향은 거시적 차원에서 근린이 도시의 공공 시설 및 공공서비스 자원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접근성의 경우 근린이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의 일자리 중심지에 대해 가지는 접근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취업 기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경로를 통해서 근린환경이 개인의 심리,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위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근린효과 이론은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즉, 도시, 근린, 개인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그림 2-6>의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 전체의 환경 변화는 근린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고 거주민들이 인지하는 근린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근린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 경찰서, 공공서비스 같은 시설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개인의 특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Friedrichs et al.,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Kearns and Parkinson(2001)은 사회적 혼합은 그 효과가 집, 근린, 도시와 같이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Galster et al.(2010)의 근린 내부·외부 메커니즘 구분과도 일맥상통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6> 근린효과의 다차원 모형 (Friedrichs et al., 2003, p.801)

2.1.2. 도시공간의 분리 현황 및 대책

1) 서울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 양상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이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시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시 내의 거주지 분리 및 거주 집단 간의 공간적 배제 양상에 관한 연구는 도시 분야 연구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이상일, 2007).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⁸⁾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기석, 1980; 이숙임, 1987; 홍두승·김미희, 1988; 홍두승, 1991; 도경선, 1994; 승현아, 1996; 임석희·이용우, 2002; 한주연, 2002; 선주형, 2004; 최은영, 2004; 배순석 외, 2006; 이재원·이우종, 2007; 황은주, 2008).

그중 1990년대 이전의 양상을 분석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홍두승·김미희(1988)의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를 시기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초까지는 계층별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여러 계층이 혼재하였다. 부흥주택 등의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된 시기에는 그 지역 주변에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같이 생겨나면서 중산층과 도시하류층이 서로 근접하여 거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아파트가 확산되었고 계층 간의 거주지 분리가 시작되었다. 즉,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의 대량 건설과 함께 서울의 주거지는 계층 간 혼재 양상에서 계층 간 분리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8) 우리나라의 도시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규모로 봐도 가장 큰 도시이며 자료를 구하기도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급격한 도시화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서울시의 거주지 분리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서울시의 거주지 분리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과정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와 함께 공간적 분리도 가속화되었는데(Ostendorf et al., 2001),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같은 흐름을 따랐다. 임석희·이용우(2002)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과정이 전형적으로 전개된 도시로, 우리나라 도시들 중 가장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IMF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층 거주지와 나머지 지역 간의 공간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심화된 공간적 양극화가 더욱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선주형(2004)은 도시의 수직적 분리를 제시하였다. 이전까지의 거주지 분리 양상을 계층 간 거주공간의 수평적인 분리로 본다면, 2000년대 들어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등장으로 수직적 분리 양상이 함께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 분리는 가시성과 물리적 배제성이라는 특징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서 계층 간의 거주지 분리의 심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한편 배순석 외(2006)는 공간적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를 사례로 저소득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시설 미비 주택 비율을 통해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된 결과 공공주택 비율의 분리가 심화되었고, 노후주택 역시 분리 정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의 입지적 분리가 심화되었다고는 해도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유럽과 북

미 여러 나라 도시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공간적 분리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 비하면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리를 연구한 윤인진(1998)이 서울시에서도 특정 계층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인종적 거주지 분리에 비하면 심하지 않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도시인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계층별 거주지의 분리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거주지 분리 양상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여타 도시들과 비교하여 서울의 사회계층별 공간적 분리 정도는 아직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수직적인 분리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간적 분리가 점점 가속화되는 분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들은 연구 관점의 차이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주로 특정 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계층의 거주지 분포 양상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도시 공간에서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실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통계자료의 교육수준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⁹⁾ 먼저 2000년, 2005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의 분리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집계구 단위별로 평균 교육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여 근린 내부와 근린 외부에서 소득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

9)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공간의 규모가 매우 커서, 비공간 지표의 경우 분석 결과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간 지표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자료의 특성과 측정 방식은 3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며,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가 집계구별로 있기 때문에 근린 내부 교육수준별 균등도도 측정할 수 있었다.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교육수준을 설정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가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⁰⁾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교육수준의 공간의 집적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단위를 자치구와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Moran's I 값을 계산한 후 두 수치의 평균을 구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2005년, 2010년¹¹⁾ 세 개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값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서울시의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치구별 평균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공간 집적 정도는 매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자치구별 교육수준 차이와 집적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동별 평균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감소한 후, 201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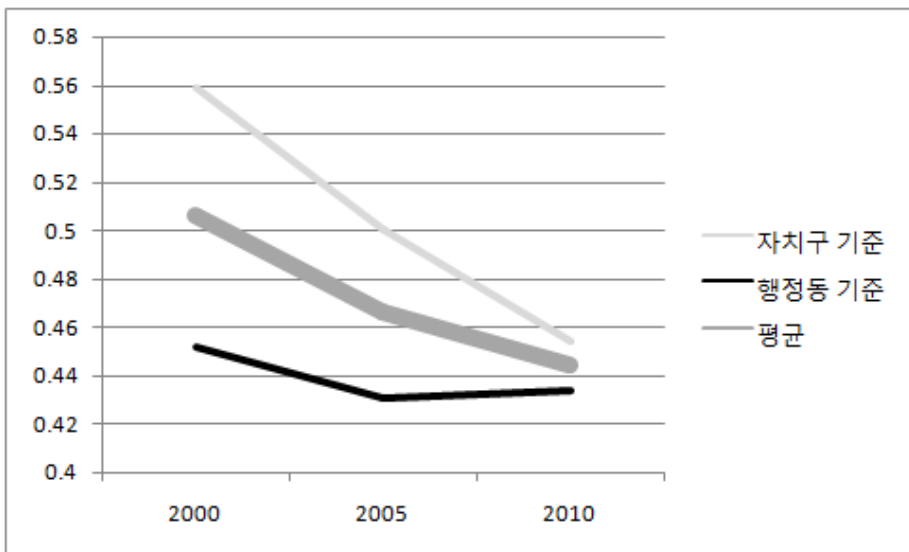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자치구와 행정동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된 거주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서울시의 공간 집적 정도는 그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0) 5장의 분석에서는 실제로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평균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내용은 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었으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행정동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행정동의 지리적 특성이 많이 변화하였다. Moran's I 지수는 행정동의 지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의 교육수준 자료를 2005년의 행정동 체계에 맞춰서 변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였다.

<표 2-1> 서울시 전체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

구분	서울시 Global Moran's I 값		
	2000	2005	2010
자치구별 교육수준 기준	0.559	0.500	0.454
행정동별 교육수준 기준	0.452	0.431	0.434
평균	0.506	0.466	0.444



<그림 2-7> 서울시 전체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

교육수준 변수를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보았을 때 서울시 전체의 소득수준별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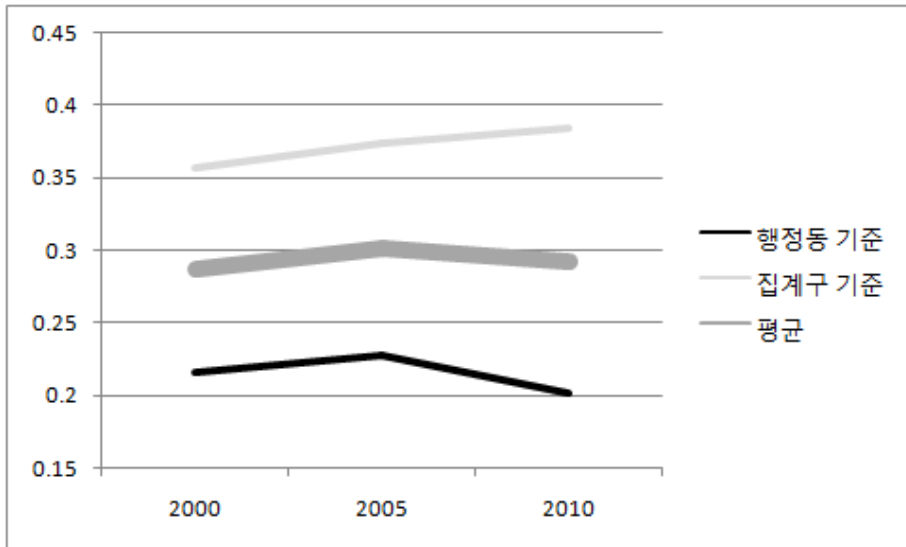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적 집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Moran's I 지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는 자치구보다 하위 단위인 행정동과 집계구로 설정하고 두 가지 값을 모두 계산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Moran's I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2000년, 2005년, 2010년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표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측정 기준이 되는 공간 단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행정동 기준으로 측정된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계구 기준으로 측정된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수치의 평균을 계산한 값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증가한 후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 단위에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서울시 전체의 공간 집적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과 비교해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공간 집적 정도와 그 세부 단위에서의 공간 집적 정도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적 분리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의 평균

구분	자치구별 Global Moran's I 값의 평균		
	2000	2005	2010
행정동별 교육수준 기준	0.216	0.228	0.201
집계구별 교육수준 기준	0.357	0.374	0.384
평균	0.287	0.301	0.292



<그림 2-8>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집적 양상의 평균

2) 거주지 분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적 혼합

거주지 분리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사회적 혼합이다(배순석 외, 2006). 사회의 균형적인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소득수준, 연령층, 주택 소유관계, 인종, 민족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적 혼합은 주로 개개인의 기초적인 생활공간이 되는 주거지 혹은 주택에 대한 계획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고자 한다. Sarkissian(1976)에 의하면 주거공간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저소득층에게 긍정적 자극을 주고, 다양한 기회에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계층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지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여 제안된 개념이다. 사회적 혼합 개념은 서구 국가를 비롯해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빈곤층이 모여 있는 지역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근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Arthurson, 2002).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혼합 개념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탄생하였다. 그 시기에 영국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거주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거주지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자, 이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였다. 이때 특정 계층의 공간적 집중을 희석시켜줌으로써 계층 간 공간적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혼합이 제시된 것이다(Arthurson, 2008).

사실 사회적 혼합은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의 정의, 목표로 하는 대상이나 적절한 혼합 정도 등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책 자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Van Kempen and Bolt, 2009).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

합은 다양성을 통한 관용의 증진, 빈곤 집중 지역의 고립심 저감 등의 이유로 인정받아왔으며(Sarkissian, 1976), 특히 많은 정치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 혼합이 적어도 빈곤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Musterd and Andersson, 2005).

3) 사회적 혼합 정책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주지 분리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인 사회적 혼합이 실제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현실세계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혼합 개념의 발생지이자 이미 많은 정책이 시행된 서구 국가의 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주택 소유관계의 혼합이 주택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소유관계의 혼합을 통해 저소득층의 공간적 집중을 예방하고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obson et al., 2000; Musterd and Andersson, 2005).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다양화하여 사회적 혼합을 이룩하려고 하였으며, 자치구별 최소 공공주택 비율을 강제하여 빈곤층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Jacquier, 2001 재인용; Musterd and Andersson, 2005). 네덜란드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1997년에 수립된 ‘Memorandum on Urban Renewal’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종류나 소유관계 측면에서 혼합을 유도하여 지역별 주거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적 다양성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근린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된 정책이다(Van Beckhoven and Van Kempen, 2003).

미국에서는 HOPE VI와 Moving to Opportunity와 같은 사회적 혼합 정책이 실시되었다. 주택의 철거 재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한 HOPE VI는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반면 Moving to Opportunity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개별가구에 주택 선택권이 있고 그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유럽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Musterd and Andersson, 2005).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인해 거주지의 분리,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를 겪은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197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합의 개념은 신규분양 주택단지나 주택 재개발 사업 시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강제하는 형태로 적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혼합’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법령에 등장한 것은 2000년 이후인데, 그나마도 적극적인 법령이 아니고 주택 건설 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의 설계적 차별이 없도록 강제성 없이 주문하는 정도이다.¹²⁾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적 혼합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서구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혼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회적 혼합 개념 자체에는 다양한 소득계층, 민족, 인종 등의 혼합이 모두 포함되지만(Simon et al., 2001 재인용; Rose, 2004), 현실적인 정책에서는 주로 주거 부문의 혼합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 부문의 혼합과 사회적 혼합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주거 부문에서의 혼합이 다양한 계층이나 인종 등의 혼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사회혼합계획이 언급되며,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등의 자체 기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는 가정하에서 사회적 혼합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Musterd and Andersson, 2005).

한편 주택 자체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회적 혼합 정책이 주거 부문의 혼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결국 지금까지 사회적 혼합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소득수준의 혼합을 통해서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을 막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혼합의 개념 속에는 다양한 계층 간의 접촉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주거 부문에서의 혼합 정책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빈곤층이 특정 공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혼합 정책이 활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을 예방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지역 거주민들의 소득수준 균등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2.2.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의식

2.2.1. 계층갈등과 계층의식

이 연구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특히 계층갈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갈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층 혹은 사회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홍두승(1989)에 의하면 사회계층이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희소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범주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회계층은 사회의 희소가치가 개인과 집단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한옥자, 2005). 여기에서 사회계층의 위계를 결정짓는 희소가치에는 재산, 권력, 직업, 학력, 소득 등의 다양한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김채윤, 1975). 또한 Turner(1984)는 사회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집단의 서열을 나타내는 수직적 차원과 특정 집단의 형성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계층을 이렇게 정의해보았을 때,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계층의식이다. 계층의식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인지, 계층을 분리하는 요인에 대한 인지를 지칭하기도 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의 일체감, 타 집단과의 비교 의식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Lopreato and Hazelrigg, 1972). 쉽게 말해서 계층의식은 개개인이 자신의 계층위치나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계층의식이 부정적인 사회일수록 계층갈등이 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사회계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객관적인 계층구

조에 초점이 맞춰져왔다(김병조, 2000). 즉, 한 사회의 계층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회의 계층구조가 계층갈등의 기본 전제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계층구조 이외에 개인들의 계층의식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의 계층구조가 객관적인 수치로 어떻게 측정되는지와는 별개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계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파악된 계층구조 연구결과만으로는 계층의 의미나 실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층갈등으로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Jackman and Jackman, 1983).

계층의식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계층의식이 분류되고 있다. 장상수(1996)는 그러한 다양한 분류방식들을 정리하였는데, 계층의식이 사회계층의 위계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수직적 차원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감을 나타내는 수평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사회계층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계층구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계층의식은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계층과 관련된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평적 측면의 계층의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계층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개념이고, 수직적 측면의 계층의식은 개인이 사회의 계층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층구조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계층구조 이미지는 사회의 빈부격차 정도, 계층이동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2.2.2. 사회통합의식

계층의식 개념이 계층 개념과 계층갈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사회통합 개념은 계층갈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계층갈등을 포함하여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통합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1) 사회통합의 개념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사회통합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많은 연구기관에서 사회통합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통합의 정의와 측정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적용되고 있는 정의는 없고(OECD, 2009),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Chan et al., 2006). 사회통합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도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3가지 표현에 대해서 노대명(2009)과 차미숙 외(201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ocial Inclusion은 Social Exclusion, 즉 사회적 배제의 반대 개념으로 사회통합을 정의한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Social Inclusion은 좁게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나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Social Integration은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통합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대명 외(2009)에 의하면 Social Integration은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방식을 다른 집단에게도 강조하여 통합을 이룩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최근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표현이다.

Social Cohesion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Social Cohesion은 사회통합을 지칭하는 3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갈등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Social Cohesion 개념이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의된 사회통합의 개념은 <표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 상황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속감이 높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회 전체적인 갈등이 최소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주요 연구별 사회통합의 정의 및 측정지표

저자	년도	사회통합의 정의
Powers	1981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
Chan et al.	2006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결속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원들끼리의 결속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협력함. -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함. - 위의 두 조건이 객관적인 형태로 표출됨.
노대명 외	2009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한 기회의 부여 - 물질적 불평등의 최소화
강신욱	2010	사회의 구성원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차미숙 외	2011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역량과 그 결과 상태
김미숙 외	2012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2) 사회통합 측정지표와 사회통합의식

사회통합이 실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의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측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 및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량화하여 나타낸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 지표는 각 사회가 처한 사회통합 관련 실태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사회통합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노대명 외, 2009)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안정적인 지표를 구축하는 것은 특히 어렵는데(OECD, 2009),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통합지표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고, 아직까지 사회통합지표 측면에서의 학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노대명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OECD, 유럽평의회와 사회통합지표와 국내의 노대명 외(2010)가 제안한 사회통합지표에 대해서 정리하였다.¹³⁾ 국내 지표의 경우 노대명 외(2010)의 연구 이외에도 사회통합지표를 제안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노대명 외(2010)가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각 지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OECD와 유럽평의회와 사회통합지표와 관련해서는 각각 OECD(2009), Council of Europe(2005)을 참고하였다.

<표 2-4> 주요 사회통합지표의 내용

저자	년도	사회통합 지표의 내용
Council of Europe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크게 삶의 질 측면, 삶의 영역 측면, 삶의 기본요소 측면 3가지로 구분함. - 삶의 질 측면은 갈등해결 능력과 시민의 참여 등의 세부 지표가 포함됨. - 삶의 영역 측면은 시민의 웰빙이 보장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지표가 포함됨. - 삶의 기본요소 측면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신뢰, 소속감 등의 지표가 포함됨.
OECD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명칭은 사회지표로, 사회지표 내부에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지표 자체가 사회통합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지표는 크게 자족, 형평, 건강, 사회통합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상태지표와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는 대응지표로 구분됨. - 자족 영역에는 고용, 교육, 교육지출 등의 지표가 포함됨. - 형평 영역에는 소득 불평등, 성차별, 공공사회지출 등의 지표가 포함됨. - 건강 영역에는 기대수명, 비만율, 보건지출 등의 지표가 포함됨. - 사회통합 영역에는 자살율, 범죄율, 투표율 등의 지표가 포함됨. - 기본적으로 국가간 비교에 용이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고, 객관적 통계자료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구성됨.
노대명 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지표를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지표와 사회의 실태를 나타내는 조건지표로 구분함. - 상태지표는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행위 지표로 다시 구분되는데, 주관적 의식에는 신뢰, 준법정신, 소속감 등이 포함되고, 객관적 행위에는 자원봉사자 비율, 기부금 등의 지표가 포함됨. - 조건지표에는 빈곤율, 실업률, 진학률, 이혼율, 자살률 등의 지표가 포함됨.

사회통합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측정 지표 자체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대명 외(2010)의 지표 구성방식처럼 많은 사회통합지표체계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통합지표를 상태와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군으로 구분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0). 상태지표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 상태와 관련된 지표이고, 조건지표는 사회통합에 기본 조건이 되는 사회의 실태와 관련된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광범위한 세부 지표들 중에서 연구 목적에 맞게 계층갈등과 연관이 있는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상태지표에서는 신뢰, 관용, 소속감 등이 주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타 계층의 사람에 대한 신뢰 및 관용의 정도 측정함으로써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신뢰의 경우 여러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Fukuyama, 1995) 요소이며, 계층갈등이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갈등임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관용 또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조건지표에서 계층갈등과 연관이 있는 지표로는 소득 불평등 정도, 기회의 균등 정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조건지표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회의 전체적인 실태를 측정하는 방식의 지표이다. 하지만 관련 사회의 실태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측정한다면 조건지표를 상태지표화시킬 수 있다. 즉, 계층갈등과 관련된 조건지표를 개인의 계층의식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2.3. 소결

2.1. 절에서는 도시공간에서의 거주지 분리의 개념, 원인 등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한 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간적 분리의 현황을 분석해보았으며, 분리에 대응하는 사회적 혼합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황 분석 결과 서울시에는 교육수준을 대리변수로 봤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서 공간 집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 정도와 변화 양상은 측정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시 전체의 공간 집적 정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치구별 공간 집적 정도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조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간 집적 양상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공간 집적 양상이 큰 연관성 없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상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관련 이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 측정 방식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종, 민족 등의 분리를 측정하는 지표들과 비교해볼 때, 높고 낮음이 구분되는 연속적인 변수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과 기존 지표들이 가지고 있던 공간적 입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 측정 방식은 ‘범주화 방식’, ‘분산 측정 방식’,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으로 종합해볼 수 있었다. ‘범주화 방식’과 ‘분산 측정 방식’은 입지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비공간 지표이며,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은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 지표이다. 여기서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의 경우 근린효과 이론에 따라 기준이 되는 공간의 내부와 외부 측면에서 모두 고려하도록 한다.

<표 2-5>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의 측정 방식 및 지표

구분	측정방식	설명	지표 예시
공간 지표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를 측정	Global Moran's I
비공간 지표	범주화 방식	소득수준을 범주화 하여 기존의 분리 측정방식에 적용	상이지수, 엔트로피 지수, 허쉬만-허핀달 지수 등
	분산 측정 방식	소득수준의 분산 정도를 측정	분산, 표준편차

2.2.절에서는 계층갈등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 계층의식,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계층갈등 및 계층의식 이론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와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인의 계층의식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특히 개인이 자기 자신의 계층위치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계층갈등 의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론은 다소 광범위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사회통합의 개념 자체가 계층갈등과 관련해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갈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통합 지표 중에서 계층갈등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지표들은 노대명 외(2010)의 구분 방식에 따라서, 상태지표와 조건지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상태지표는 개인이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식수준과 관련이 되며, 사회 소속감, 타인에 대한 신뢰, 관용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반면 조건지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현 실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 불평등 정도, 기회의 균등 정도, 범죄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을 ‘자신에 대한 평가’, ‘사회에 대한 평가’, ‘타인에 대한 태도’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계층의식 이론에서 강조된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와 관련된 범주이다. ‘사회에 대한 평가’ 범주는 사회통합 지표에서 추출된 조건지표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고 있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태도’ 범주는 추출된 사회통합 지표 중 상태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표 2-6>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

범주	내용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의 계층위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사회에 대한 평가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 조건지표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타인에 대한 태도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 상태지표로, 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 관용 등의 태도

Ⅲ. 분석의 틀

3.1. 연구문제 설정

3.1.1. 선행연구 검토

1)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사회적 혼합, 사회통합의식의 관계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통합의식 중 하나인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Jackman and Jackman(1983)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계층 관련 의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관적 계층위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장상수, 1996), 초기에는 주로 소득수준, 교육 정도, 직업과 같은 개인의 객관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도시민의 거주지역이나 거주주택이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논의되었다. Gibbard(1941)는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며, 거주지역 자체가 거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오늘날은 소비의 측면에서 계층의 차이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특정 거주지나 주택은 소비 측면에서의 차이가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래서 특정 계층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는 타 계층과의 구별을 심화하여 계층 구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김왕배, 2000; 원은지, 2006). 이외에 이병훈·윤정향(2006), 김진원(2007), 김지은(2012)도 개인의 거주지역이나 거주주택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내외로 많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Jackman and Jackman(1983)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는 그 사람의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순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Yoon and Seok(1996)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과 함께 재산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김병조(2000)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의 순서로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으며, 서광민(2009)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외에 소득만족도, 생활만족도가 주관적 계층위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이나 주택이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조동기(2006)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동기(2006)는 한국 중산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산층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객관적 지표 외에 주택 관련 변수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거주지역이나 주택이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계층위치의 분포를 통해서 한 사회의 계층구조 이미지를 평가하곤 하기 때문에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가 따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논리적으로 주관적 계층위치의 분포가 사회의 계층구조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

럽다(김병조, 2000). 사회의 계층구조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계층구조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오현복, 2010), Vanneman and Pampel(1977), Vanneman(1980), Britten(198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계층구조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직업, 성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경선(1994)은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리를 사회의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공간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았고, 윤인진(1998)은 거주지 분리가 사회계층이 대물림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문조(2008)는 우리나라 도시의 부동산 격차가 사회의 빈부격차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의 식과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미나(2006)는 소득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가 계층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계층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서문기(2013)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괴리감을 형성하여 계층 간 단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김위정, 2003; 김문조, 2008; 서문기, 2013), 아직까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소득에 따른 도시에서의 공간적 분리가 개인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공간 분리에 대한 대응 개념인 사회적 혼합 정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혼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혼합 정책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밝힌 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 빈곤

층의 개인 능력이나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Cole and Goodchild, 2001; Bacque et al., 2011).

반면 사회적 혼합 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거지 혼합이 실제로 사회적 혼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계층의 혼합이 일어났더라도 예상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Andrews, 1986; Ostendorf et al., 2001; Arthurson, 2002; Kleinhans, 2004; Musterd and Andersson, 2005; Arthurson, 2008; Blanc, 2010).

사회적 혼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제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 정책이 시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지역별로 정책의 성격과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주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거주지역의 주민 분포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환경특성이 근린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주거지 분리도 거주민의 심리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외의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의 대상지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대부분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수정 외, 2004; 배순석 외, 2006; 김양수·서혜석, 2007; 천현숙 외, 2009).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볼 때 많은 경우 사회적 혼합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즉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민 사이에 갈등 없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간의 분리가 거주민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관적 계층 평가와 사회통합의식의 관계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으로 정의한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 자체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차종천(1995)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가 계층분화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연대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고, Veenhoven(2002)은 계층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객관적 특성뿐 아니라 주관적 계층위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주관적 계층위치를 계층갈등이나 계층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로 생각한 Jackman and Jackman(1973)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 계층위치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직접적으로 사회통합의식과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주관적 계층위치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러 객관적 변수들과 함께 주관적 계층위치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주관적 계층위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윤인진·김상돈, 2008; 오혁제, 2009; 오현복, 2010; 하억중, 2012). 김자영·김두섭(2013)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주관적 계층위치가 높을수록 기부행위가 많아진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김병조(2000)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본인을 상층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1.2. 연구의 차별성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공간의 분리 원인 및 본질’에 관한 연구 흐름, 주로 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공간의 분리 양상 및 측정 방식’에 관련된 연구 흐름, 주로 사회학, 도시 및 주택연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공간의 분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흐름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흐름 중에서 ‘공간의 분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 흐름은 특정 인종·소득계층의 지리적 고립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특정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요 관심사는 빈곤이 집중된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취업기회와 같은 경제적 기회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한편 빈곤의 공간적 집중 및 도시공간의 분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혼합 개념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주로 주택이나 주거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혼합 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요 관심사는 거주지의 사회적 혼합이 거주민의 거주만족도, 이웃관계, 경제적 기회 등이고 그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봤을 때, 공간의 분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적 네트워크, 취업기회와 같은 경제적 측면과 거주만족도나 이웃관계와 같은 근린 내 생활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의 갈등, 특히 계층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한 이론적 논의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을 정의한 후, 공간의 분리와 사회통합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거주지 내부의 환경이나 이웃관계, 개인의 경제적 기회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과 비교해,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계층갈등과 관련된 의식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1.3. 연구문제 설정

연구문제1.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영향을 주는가?

가설1-1.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자신에 대한 평가 차원의 사회통합의식인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는 도시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는 주로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주거지역이나 주택 또한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위정(2003)에 의하면 특정 주거지의 분리가 거주자들끼리의 범주화를 쉽게 하여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그러한 낙인효과는 거주민의 자존감과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1-2.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 개인이 평가하는 사회의 계층구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계층의 대물림이나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볼 때,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는 도시민이 가지는 사회의 계층구조 인식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지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소득수준의 공간적 분리가 심하다는 의미이므로, 분리 정도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의 계층구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 개인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타 계층에 대한 태도 변수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생각해볼 때,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심한 지역에 사는 거주민일수록 타 계층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의 분리가 심한 경우 주민들 사이에 괴리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여러 계층의 주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2.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에 따라 사회통합의식 수준이 차이가 나거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는가?

가설2-1.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가 높을수록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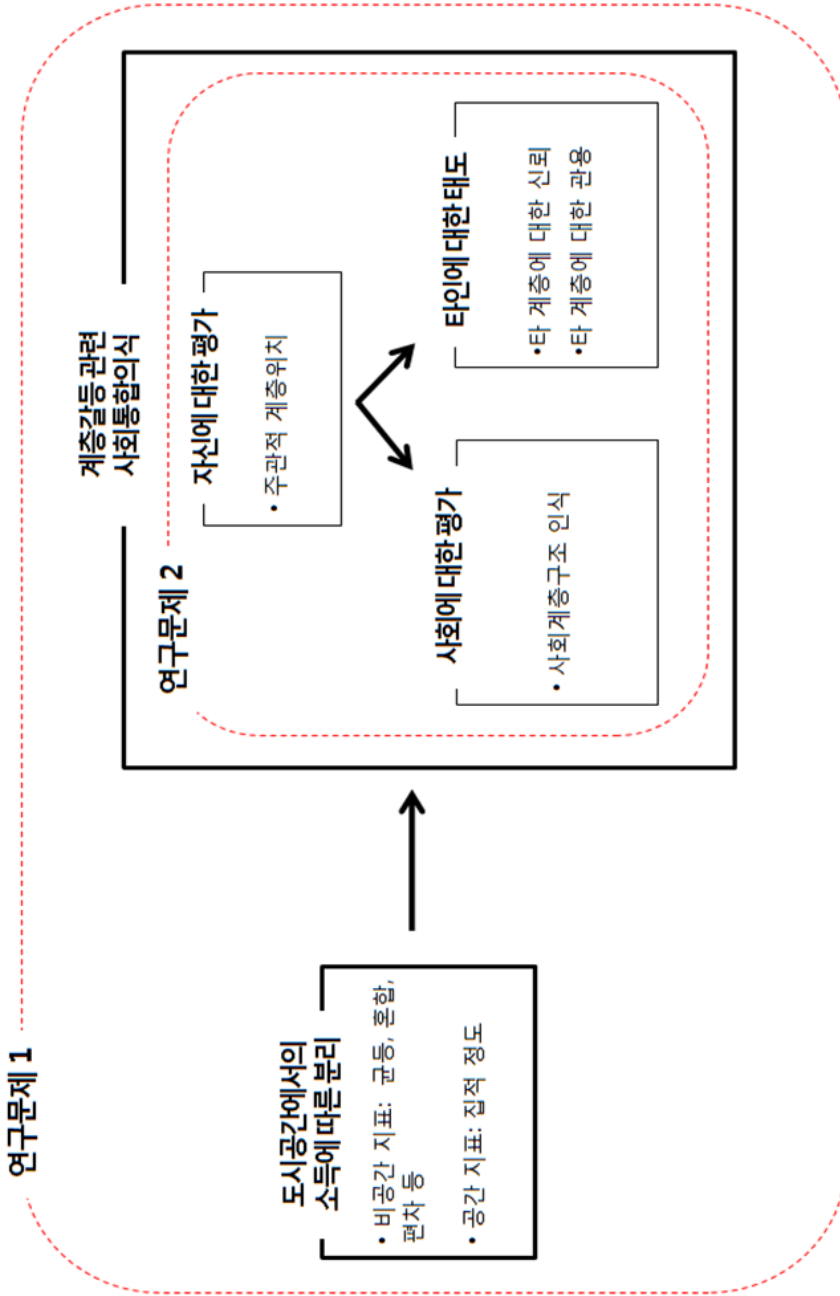
자신의 계층위치에 대한 인식이 계층구조와 관련된 태도, 행동 등으로 연결된다는 차종천(2004)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계층구조 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주관적 계층위치가 낮을수록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와 타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주관적 계층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고 기부행위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타 계층의 사람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2-2.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거주지 분리에 의해 낙인효과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볼 때,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개인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하층민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낙인효과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영향은 주관적 중층 혹은 상층민보다는 주관적 하층민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1> 연구문제의 개념도

3.2. 연구 대상지 및 분석자료

3.2.1. 연구 대상지 선정

제시한 연구문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듯이, 거주지 주변 환경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근린효과 이론은 그 기준이 되는 공간 범위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즉, 근린의 차원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차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라는 측면 역시 기준이 되는 공간의 다양한 규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분리 양상과 미시적 차원의 분리 양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2장의 현황분석 결과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결국 도시공간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되는 공간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공간 규모 중에서 미시적 차원, 즉 근린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의 공간적 규모를 근린 규모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린은 거주민들이 포함된 환경과 근접성을 공유하는 지리적 단위(Chaskin, 1997)로, 흔히 보행권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 주는 영향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린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준이 되는 공간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간의 특성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 될

수밖에 없다.¹⁴⁾

또한 분석의 현실적인 조건과 연구의 합의 측면에서도 근린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비교가 필요하게 된다. 그 경우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필요하며, 각 도시별 다양한 맥락을 통제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의 영향을 분석할 경우, 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린 규모를 선택할 경우 도시계획·설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3.2.2. 분석자료

1) 기초 통계자료

□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지역별 소득수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 수준 자료가 제공되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가구별 속성 및 각 가구의 통행특성에 대한 조사로 4년마다 실시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 부문 자료의 가구별 주소 정보는 행정동 단위까지 제공되는데, 행정동별로 평균적으로 172여 가구의 샘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행정동을 대표하는 소득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4)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 동과 임대주택 동이 분리되어 있다면 주민들은 이 차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과 강북의 격차와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되기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인식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 행정동별 평균소득, 행정동 내 소득분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행정동 내 소득분포 정보에서는 행정동 내 소득수준의 편차, 소득계층의 균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¹⁵⁾ 자료

근린 내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공간인 근린보다 작은 공간 단위에서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집계구별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집계구별 소득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집계구별, 인구, 가구, 주택 정보를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인구,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총 가구 수, 교육수준별 인구, 점유형태별 가구, 연건평별 주택, 주택유형별 주택, 건축연도별 주택 정보를 이용하였다.

2) 설문조사 자료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는 연구의 목적에 맞춰서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 정도를 반영하여 선택하였다. 개략적인 소득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15)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가 읍면동 단위라고 할 때, 집계구란 통계조사 시 자료집계를 위해 편의상 읍면동보다 더 작게 설정한 구역으로 인구는 약 500명, 크기는 읍면동의 약 1/25 수준으로 설정된다. 집계구는 유사한 주변환경을 가진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약 16,000여개의 집계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행정동별로 평균적으로 약 38개의 집계구가 설정되었고, 집계구별로 약 59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먼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가구 부문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소득을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행정동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Local Moran's I 수치를 구하여 특정 소득 간의 공간 집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거주하는 근린이 외부의 다른 근린들과 가지는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거주하는 근린 내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가구 부문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 행정동별로 가구 평균소득의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행정동별 소득수준 균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 가구의 소득을 상징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택유형을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 활용했는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별로 얼마나 다양한 주택유형이 존재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주택은 주로 같은 유형끼리 모여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택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소득의 편차와 공간적인 분리가 심한 것으로 보았다.

정리해보면, Local Moran's I 지수를 기준으로 저소득 혹은 고소득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행정동, 소득 혼합 정도를 기준으로 상·하위 20% 안에 해당되는 행정동, 주택유형 혼합 정도를 기준으로 상·하위 20% 안에 해당되는 행정동에 기준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즉 기준별로 중복이 많이 된 행정동으로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¹⁶⁾ 최종적으로 94개의 행정동을 설문 대상지로 선택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전문 패널 조사 방식으로 2013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 행정동 정보가 포함된 총 유효샘플은 583개이다.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 반경 500m 이내의 근린

16) 서울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구분하여 지리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고려하였다.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주소 정보가 필요한데, 583개의 유효샘플 중 166개 샘플을 제외한 417개 샘플은 상세한 주소 정보가 구득 가능하였다. 여기에서 거주지 주변 근린환경을 거주지 반경 500m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500m가 보행권 거리로 주로 사용되거나 근린주구 이론에서 주장되는 500m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권역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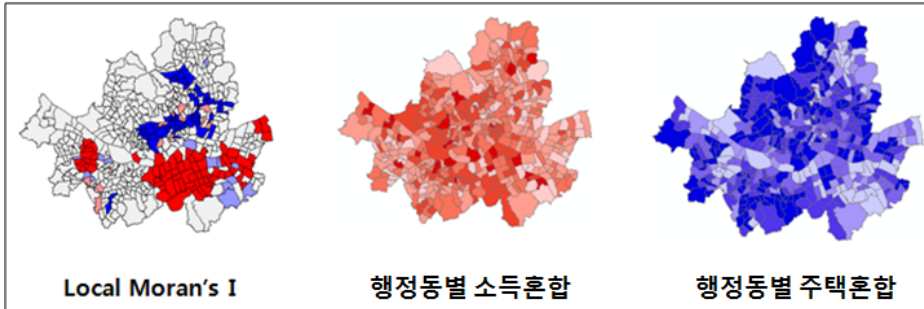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거주지 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거주기간이 짧은 설문 대상자¹⁷⁾는 분석샘플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를 할 당시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설문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 특성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357명의 샘플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거주지 분포는 <표 3-1>과 <그림 3-2>, <그림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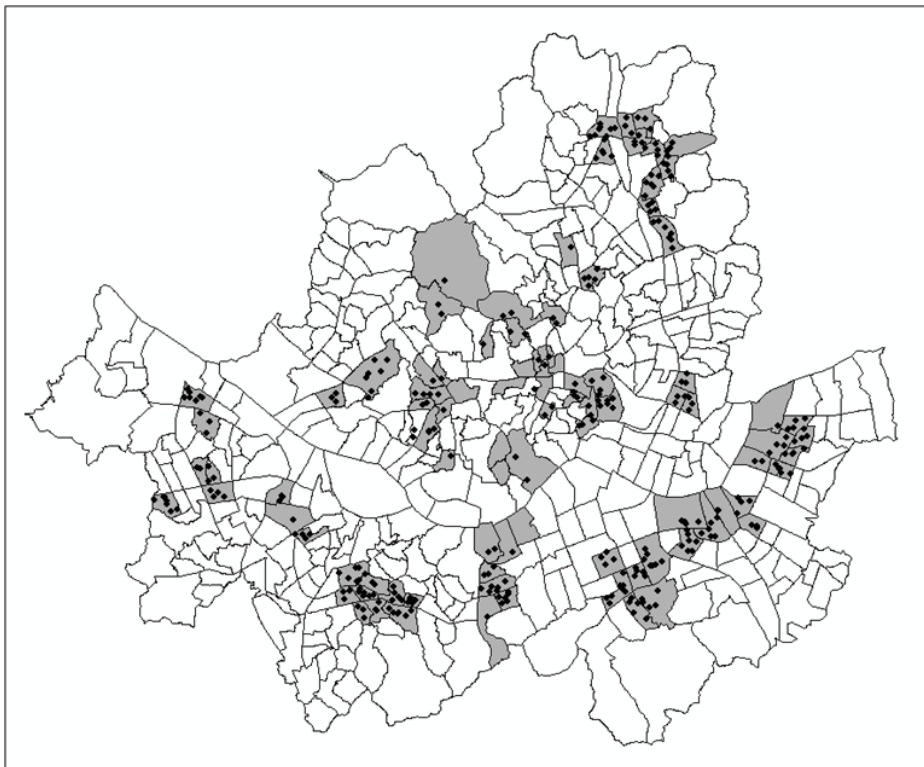
17)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샘플을 제외하였다. 2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전세 세입자를 기준으로 볼 때, 계약 갱신의 단위가 되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표 3-1> 설문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4	51.5
	여성	173	48.5
연령	20대	81	22.7
	30대	144	40.3
	40대	93	26.1
	50대	33	9.2
	60대	6	1.7
결혼	기혼	207	58.0
	미혼	150	4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	0.6
	고등학교	36	10.1
	전문대	55	15.4
	4년제 대학	220	61.6
	대학원 이상	44	12.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	2.5
	100~200만원	27	7.6
	200~300만원	60	16.8
	300~400만원	68	19.0
	400~500만원	62	17.4
	500~600만원	56	15.7
	600~700만원	34	9.5
	700만원 이상	41	11.5
직업	전문직	56	15.7
	관리직	42	11.8
	사무직	143	40.1
	판매직	5	1.4
	서비스직	17	4.8
	생산직	4	1.1
	단순 노무직	2	0.6
	학생	27	7.6
	주부	42	11.8
	미취업	8	2.2
	기타	11	3.1



<그림 3-2> 설문 대상지 선정 기준



<그림 3-3> 최종 선정 대상지 및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 위치

3.3. 주요변수 측정 방식

3.3.1.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 측정 방식 선정

1) 공간 지표_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는 Global Moran's I 지수로 측정하였다. Moran's I 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이다. 기준이 되는 특성에 대해서 인접한 지역에서 서로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면 그 특성에 대한 양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며 지표는 + 값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인접한 지역에서 서로 크게 상이한 수치를 보여준다면 이는 음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표는 - 값을 가지게 된다. Moran's I 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양승호 외, 2014).

$$I = \left[\frac{n}{\sum_i \sum_j w_{ij}} \right] \frac{\sum_i \sum_j w_{ij} (x_i - \bar{x})(x_j - \bar{x})}{\sum_i (x_i - \bar{x})^2}$$

위 식에서 n은 단위가 되는 공간의 수, w_{ij} 는 공간 가중치 행렬, x_i 는 i 지역에서의 특성 x의 값이며, \bar{x} 는 x_i 의 평균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Arc Map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준단위가 되는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Global Moran's I 지수는 분석에 활용된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 정도를 나타내는데,¹⁸⁾ Global Moran's I 지수의 경우 전체 지역과 기준이 되는 지역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수치가

18) 반면 Local Moran's I 지수는 단위지역별로 계산되어서, 전체 공간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최은영, 2004).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분석에서는 기준이 되는 공간의 규모를 근린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근린 내·외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근린 내부에 포함되는 집계구의 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¹⁹⁾, 근린 외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는 해당 근린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 내에서 행정동별 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²⁰⁾

2) 비공간 지표

□ 범주화 방식_균등도 지표

근린 내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는 교육수준의 균등정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²¹⁾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hman-Herfindahl Index, HH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토지이용의 용도 혼합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본래 경제학에서 지역이나 국가의 다양한 산업부문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서, 각 산업부문의 비율을 제공하여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임주호, 2006).

$$HHI = \sum_{i=1}^n p_i^2$$

19) 집계구의 평균 소득수준은 추정식을 통해서 계산하였으며, 추정식 도출 과정은 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서울시의 경우 자연녹지를 제외한 도시화 면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행정동당 평균 면적이 0.86km²이며 이를 원 모양으로 가정하면 반경 522.85m의 원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 주변 500m 반경을 근린환경의 범위로 설정할 경우 하나의 근린이 하나의 행정동 규모와 비슷해지게 된다.

21)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정보가 제공되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을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3.3.2.의 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p_i 는 i 범주의 비율을, n 은 범주의 개수를 의미한다. 만약 n 개 부문 산업들의 혼합 정도를 측정한다면, 모든 산업부문이 균등한 비율로 분포할 경우 HHI는 $1/n$ 으로 계산되며, 특정 용도가 독점적으로 존재한다면 HHI는 1로 계산된다.

이 연구에서는 허쉬만-허핀달 지수에 산업부문의 종류 대신에 소득 수준의 대리변수인 교육수준 변수를 적용하여 교육수준의 균등 정도를 계산하였다.

지역별 거주민의 교육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의 경우 교육수준이 총 8개의 범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지수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범주의 개수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총 4개의 범주²²⁾로 축소하였다. 결과적으로 4단계로 구분된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준이 되는 공간 안에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계산된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여러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균등하게 분포함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1에서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뺀 값($1 - HHI$)을 최종적인 변수로 활용하였다.

□ 분산측정 방식_편차 지표

근린 내 소득수준의 분산측정 방식에는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 근린 내부에 포함된 집계구의 평균 소득수준끼리의 표준편차값을 계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22) '미취학 및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졸업',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 및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3.3.2. 소득수준 추정식 도출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와 소득수준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계구별 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통계자료에는 집계구별 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집계구의 평균 소득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선정하는 방식과, 평균 소득수준을 직접 추정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추정방식이 소득에 따른 분리를 더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판단 하에 소득 추정방식을 선택하였다. 추정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수 구성 및 분석모형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부문 자료에서는 행정동별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소득수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통계자료를 행정동 단위로 합산하면 행정동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를 구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정동별 평균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행정동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통해 특정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구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행정동별 평균 소득수준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구득할 수 있는데, 2010년 조사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도시별로 지역적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이 연구의 대상지 자체가 서울시임을 감안한 선택이다.

설명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통계자료에서 지역별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평균 교육수준, 주택 점유형태 비율, 평균 주택면적, 주택유형 비율, 평균 주택건축연도 변수를 추출하였는데,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설명변수끼리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총 부양비, 평균 주택건축연도 변수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지역별로 소득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치구별 더미변수를 지역통제변수로 추가한 후 최종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으로 설정했으며, 구체적인 변수와 지표측정 방식은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 변수 구성 및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측정 지표
종속 변수	평균 소득수준	가구 소득(6단계 순서형)의 행정동 평균
	평균 교육수준	교육수준(8단계 순서형)의 행정동 평균
설명 변수	노령화 지수	행정동 내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가주택 비율	행정동 내 자가주택 비율
	평균 주택면적	행정동 내 평균 주택면적(m ²)
	아파트 비율	행정동 내 주택 중 아파트 유형의 비율
	자치구 더미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참조변수=강남구)

2) 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의 설명력이 0.759로 분석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변수로 설정한 5가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령화 지수가 낮을수록, 자가주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주택면적이 클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에서도 표준화 β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구를 참조변수로 한 지역통제변수인 자치구 더미변수들은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강남구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 더미변수에서 β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별 평균 소득수준 추정식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유의하지 않게 나온 송파구 더미만을 제외하고 각 변수들의 β 값을 이용해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추정식을 이용해 집계구별 평균 소득수준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begin{aligned}
 \text{평균소득} = & 0.687 + 0.150 \times \text{평균교육} - 0.185 \times \text{노령화지수} + \\
 & 1.041 \times \text{자가비율} + 0.002 \times \text{평균주택면적} + 0.314 \times \text{아파트} \\
 & \text{비율} - 0.198 \times \text{강동구} - 0.271 \times \text{강북구} - 0.226 \times \text{강서구} - \\
 & 0.348 \times \text{관악구} - 0.260 \times \text{광진구} - 0.326 \times \text{구로구} - \\
 & 0.231 \times \text{금천구} - 0.253 \times \text{노원구} - 0.447 \times \text{도봉구} - \\
 & 0.290 \times \text{동대문구} - 0.268 \times \text{동작구} - 0.281 \times \text{마포구} - \\
 & 0.339 \times \text{서대문구} - 0.154 \times \text{서초구} - 0.285 \times \text{성동구} - \\
 & 0.184 \times \text{양천구} - 0.340 \times \text{영등포구} - 0.317 \times \text{용산구} - \\
 & 0.242 \times \text{은평구} - 0.378 \times \text{종로구} - 0.322 \times \text{중구} - \\
 & 0.428 \times \text{중랑구}
 \end{aligned}$$

<표 3-3> 소득추정 모형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변수	β	표준 오차	표준화 β	t	유의확률
평균 교육수준	0.150	0.015	0.408	9.853	0.000***
노령화 지수	-0.185	0.053	-0.126	-3.461	0.001***
자가주택 비율	1.041	0.135	0.276	7.710	0.000***
평균 주택면적	0.002	0.001	0.097	2.792	0.005***
아파트 비율	0.314	0.060	0.214	5.255	0.000***
강동구	-0.198	0.075	-0.089	-2.641	0.009***
강북구	-0.271	0.092	-0.104	-2.946	0.003***
강서구	-0.226	0.077	-0.107	-2.953	0.003***
관악구	-0.348	0.071	-0.168	-4.924	0.000***
광진구	-0.260	0.079	-0.107	-3.299	0.001***
구로구	-0.326	0.084	-0.135	-3.874	0.000***
금천구	-0.231	0.094	-0.078	-2.456	0.014**
노원구	-0.253	0.081	-0.117	-3.143	0.002***
도봉구	-0.447	0.090	-0.178	-4.992	0.000***
동대문구	-0.290	0.084	-0.116	-3.468	0.001***
동작구	-0.268	0.078	-0.111	-3.455	0.001***
마포구	-0.281	0.077	-0.120	-3.658	0.000***
서대문구	-0.339	0.084	-0.135	-4.040	0.000***
서초구	-0.154	0.071	-0.069	-2.160	0.031**
성동구	-0.285	0.077	-0.125	-3.692	0.000***
성북구	-0.408	0.077	-0.193	-5.286	0.000***
송파구	-0.035	0.067	-0.019	-0.529	0.597
양천구	-0.184	0.078	-0.083	-2.353	0.019**
영등포구	-0.340	0.076	-0.153	-4.462	0.000***
용산구	-0.317	0.077	-0.135	-4.093	0.000***
은평구	-0.242	0.086	-0.103	-2.808	0.005***
종로구	-0.378	0.082	-0.170	-4.608	0.000***
중구	-0.322	0.085	-0.133	-3.799	0.000***
중랑구	-0.428	0.085	-0.182	-5.039	0.000***
상수	0.687	0.216		3.173	0.002***
Adjusted R^2	0.759				

주: * $p < 0.1$, ** $p < 0.05$, *** $p < 0.01$

3.4. 분석모형 설정

3.4.1. 변수 구성

1) 사회통합의식_증속변수

□ 자신에 대한 평가

개인의 사회통합의식 중 자신에 대한 평가 부문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 변수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생활만족도, 거주환경만족도 등과 같은 다른 변수들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의식으로는 자신의 ‘주관적 계층 평가’ 지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변수 측정을 위해서 ‘현재 자신이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하-하 / 하-상 / 중-하 / 중-상 / 상-하 / 상-상’ 6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수에서는 계층 간 분포 양상과 편차를 명확히 보기 위하여 ‘하층 / 중층 / 상층’ 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3-4> 주관적 계층 변수 기술통계

주관적 계층	하층	중층	상층
빈도 수	80	256	21

□ 사회에 대한 평가

개인의 사회통합의식 중 사회에 대한 평가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빈부격차 정도’, ‘계층 대물림’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변수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7점 Likert 척도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즉,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은 자식 세대로 대물림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두 변수는 모두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을 통해 합성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16으로 나와서 하나의 변수로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각각의 지표값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사회계층구조’ 하나의 변수로 합성하였다. ‘빈부격차 정도’와 ‘계층 대물림’ 변수는 다른 사회통합의식 변수 및 지표처럼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설문점수를 역순으로 변환하였다.

<표 3-5> 사회계층구조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비고
빈부격차정도 (역순)	1	7	1.94	0.985	하나의 변수로 합성 (Cronbach's alpha = 0.616)
계층 대물림 (역순)	1	7	2.18	1.107	

□ 타인에 대한 태도

개인의 사회통합의식 중 타인에 대한 태도 부분은 ‘타 계층에 대한 신뢰’ 변수와 ‘타 계층에 대한 관용’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출하였는데,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의식임을 고려하여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어보는 설문문항과 ‘다른 조건의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물어보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타인에 대한 태도 변수들도 의미상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평가 변수들처럼 하나의 변수로 합성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설문문항과 ‘다른 조건의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가능성’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292로 계산되어 합성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 설문문항을 각각 ‘타 계층 신뢰’ 변수와 ‘타 계층 관용’ 변수로 정의하였다.

<표 3-6> 타 계층에 대한 태도 변수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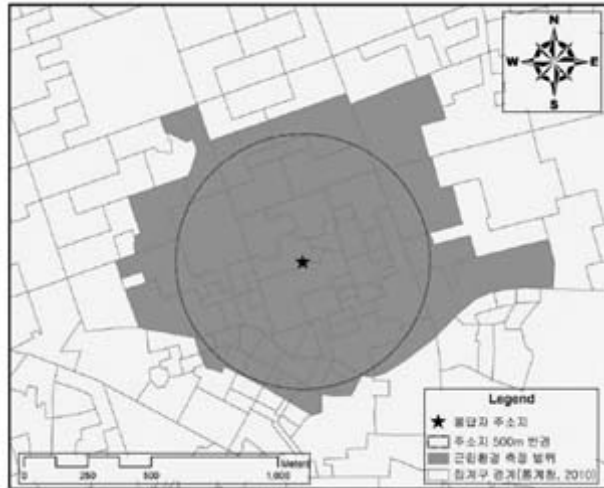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비고
타 계층 신뢰	1	7	3.92	1.215	하나의 변수로 합성 불가능 (Cronbach's alpha = 0.292)
타 계층 관용	1	7	4.71	1.086	

2)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_검증변수

□ 거주지별 근린 설정 방식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 정도 변수는 3.3.1.에서 선정한 방식으로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근린 내 교육 혼합 정도’, ‘근린 내 소득편차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측정의 기준이 되는 공간 단위인 근린의 설정 방식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단위 분석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 반경 500m 내 지역으로 개인별 근린을 설정하였다. 개인의 거주지별 500m 반경의 근린을 설정하는 방법은 김승남·김재홍(2013)을 참조하여, 개인의 거주지에서 500m 버퍼링을 설정한 후 그 버퍼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집계구 집단을 근린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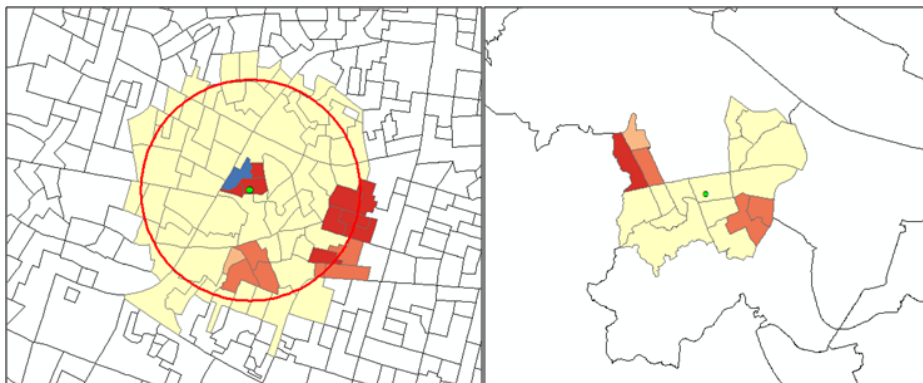
<그림 3-4> 거주지별 근린 설정 방식
(김승남·김재홍, 2013, p.101)

□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는 근린 내 집적 정도와 근린 외 집적 정도로 구분된다. 우선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의 방법을 이용해 설문 대상자의 개인별 근린에 포함되는 집계구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집계구의 추정평균소득을 기준으로 Global Moran’s I 지수를 측정하여 최종 지표 값을 계산하였다.

‘근린 외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가 거주하는 자치구가 행정동의 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를 Global Moran’s I 지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변수의 경우 근린 내부가 아닌 근린끼리의 소득 집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설문 대상자 개인별로 근린을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거주하는 행정동을 설문 대상자의 근린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상 행정동보다 위계가 한 단계 높은 자치구를 Global Moran’s I를 측정하는 단위로 설정하였다. 자치구는 개

인의 보행권보다는 큰 위계이지만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각하여,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간규모로 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평균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최소단위가 행정동이므로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와는 다르게 추정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동 단위의 평균 소득수준을 구득할 수 있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직접 활용하였다. <그림 3-5>는 근린 내·외부를 대상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를 보여 준다.



<그림 3-5> 근린 내·외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측정

<표 3-7>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관련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0.000	0.950	0.315	0.201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0.000	0.542	0.108	0.157

□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선정된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는 근린 내에 얼마나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지표 중 비공간 지표에 해당되는 변수이다. 설문 대상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을 그 대상자의 근린으로 설정하였다면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수준별 균등 정도를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설문 대상자 거주지의 500m 반경 이내의 공간을 근린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근린 내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집계구 자료에서 구득할 수 있는 교육수준 자료를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개인별로 설정한 근린 내부의 교육수준 균등 정도를 허쉬만-허핀달 지수로 계산하였다.

<표 3-8> 소득수준의 균등 정도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0.509	0.712	0.670	0.048

□ 소득수준의 편차 정도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변수는 앞의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설문 대상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된 근린 내에서의 소득수준 편차 정도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500m 버퍼링에 포함된 집계구의 추정소득수준의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변수를 계산하였다.

<표 3-9> 소득수준의 편차 정도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0.101	0.915	0.391	0.156

□ 공간 분리 측정지표 사이의 관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주요 검증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공간 지표 2개와 비공간 지표 2개, 총 4개의 소득 분리 변수를 구성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각 변수들의 개념과 의미가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특정 검증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계량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린 외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의 경우, 변수의 측정 기준이 되는 공간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측정된 ‘근린 내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와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하였고, 근린 내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를 측정하는 3가지 검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근린 외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 반면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와 ‘근린 내 소득 수준 편차 정도’ 변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 이는 두 변수가 같은 비공간 지표이며, 개념적으로 완벽히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같은 평균소득 수준을 가정했을 때,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특정 소득수준의 사람들만 거주하는 곳보다 소득편차가 클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공간 지표인 두 변수 중에서 한 변수만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는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분석되지 않았지만,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변수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근린 내부에서 집계구 간의 소득편차가 클수록 소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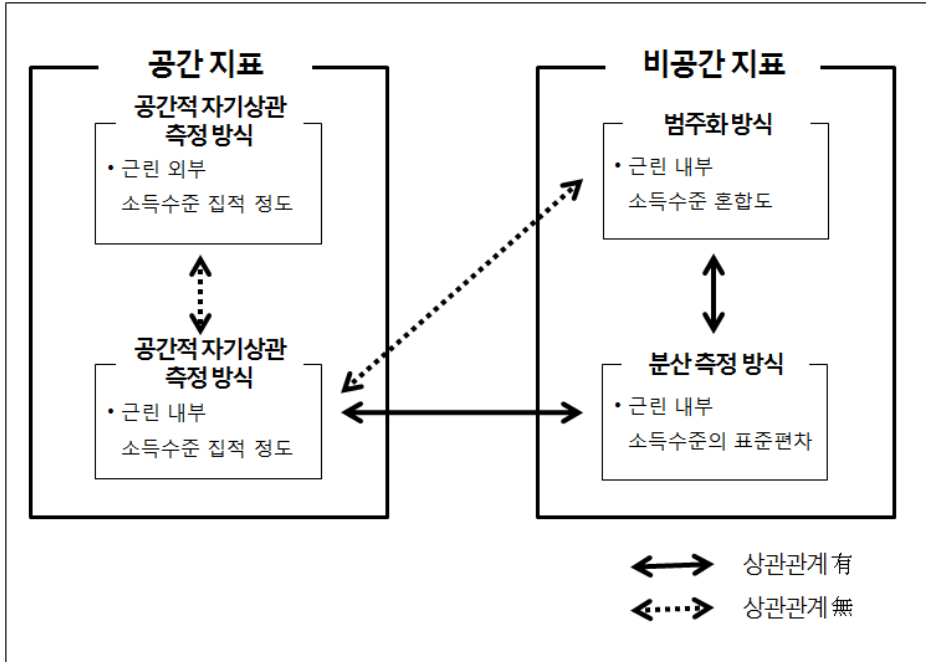
준별로 공간의 집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변수를 검증변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변수의 경우 다른 주요 검증변수인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 모두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각각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를 측정하는 공간 지표와 비공간 지표를 대표하는 변수로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검증변수는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근린 외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변수이다.

<표 3-10>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관련 변수 기술통계

변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근린 외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0.056	0.429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0.378	0.000**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근린 내 교육수준 균등 정도	-0.018	0.790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근린 내 소득수준 편차 정도	0.298	0.000**

주: * $p < 0.05$, ** $p < 0.01$



<그림 3-6> 공간 분리 측정지표 사이의 관계

3)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_통제변수

모형에서 개인별 기본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를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주택특성, 근린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직업, 지위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중 교육수준, 직업, 지위 변수는 설문 대상자의 기술통계를 고려하여 범주를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변수로, 직업은 생산·노무직을 참조변수로, 지위는 임시·일용직을 참조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 외에 개인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종교 여부, TV 시청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변수를 설정하였다. 개인의 종교생활이나 매체 사용 특성은 그 사람의 의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회 자본 관련 연구에서도 주요변수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 수준에서는 가구 평균소득, 소득만족도, 가족 수, 가족 세대수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구 평균소득의 경우 월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를 참조변수로 설정했고, 가구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소득변수와 함께 추가하였다. 이는 모형의 종속변수가 개인의 의식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외에도 주관적 소득만족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²³⁾ 가족 수와 가족 세대수 변수의 경우, 가구 규모가 점점 축소됨에 따라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제변수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환경은 주택 특성과 근린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 점유 형태 그리고 거주 근린의 평균 소득수준 변수를 설정하였다. 거주주택의 종류나 자가 여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히 큰 의미를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근린의 평균소득 수준은 거주지 반경 500m 내 집계구의 추정평균소득 값에 집계구별 가구수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증분석에 활용되는 종속변수, 검증변수, 통제변수의 측정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3-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물론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주관적인 소득만족도 사이에는 상관계수 0.446, 유의확률 0.000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은정(2014)에 따르면 0.7 미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변수들의 경우 위험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모형의 주요 검증변수가 아닌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표 3-11> 변수 정의 및 측정지표

구분	변수명	측정 지표	
종속 변수	사회 통합 의식 ²⁴⁾	주관적 계층	개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계층(하층-중층-상층)
		사회계층 구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정도(7점 Likert 척도 역순) 부모의 계층이 자식에게 대물림(7점 Likert 척도 역순)
		타 계층 신뢰	타 계층의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7점 Likert 척도)
		타 계층 관용	타 계층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능성(7점 Likert 척도)
검증 변수	도시 공간 내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	근린 내 소득 집적 정도	Global Moran's I 로 측정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Moran's I: 집계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지 500m 반경 내에서 소득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
		근린 외 소득 집적 정도	Global Moran's I 로 측정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 (Moran's I: 거주 행정동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거주 구 내에서 소득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
		근린 내 교육 균등 정도	1-HHI (HHI[Hirschman - Herfindahl index]): 거주지 500m 반경 내의 교육수준 균등도를 측정)
통제 변수	개인, 가구, 주택 및 근린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연령
		결혼	기혼=1, 미혼=0
		교육수준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참조변수)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학생, 주부, 기타·미취업, 생산·노무직(참조변수)
		지위	정규직, 자영업, 기타·해당없음, 임시·일용직(참조변수)
		종교 여부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TV 시청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인터넷 사용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소득	월소득 200~400만 원, 월소득 400~600만 원, 월소득 600만 원 이상, 월소득 200만 원 이하(참조변수)
		소득 만족도	자신의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7점 Likert 척도)
		가족 수	동거가족 수
		가족 세대수	동거가족 세대수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기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참조변수)
		자가 여부	자가=1, 자가 이외=0
근린 평균소득	거주지 500m 반경 내 집계구의 추정평균소득		

3.4.2. 분석모형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관적 계층’ 변수는 순서형 범주로 측정되었으며, 나머지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변수는 모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측정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분석모형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SPSS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의 분포에 따라 적절한 연결함수를 선택해야 한다. SPSS 패키지에서는 5가지 연결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²⁵⁾, 이 분석에서는 각 종속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연결함수를 선택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관적 계층이 다른 사회통합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계층에 따라 소득의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모형에 대해서는 주관적 계층 위치를 기준으로 t-test와 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관적 하층 계층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과, 설문조사 자료에서 상층의 비율이 약 5.2%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층과 중상층 두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수행하였고, 같은 구분 방식으로 층화분석을 수행한 후 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24)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변수는 7점 Likert 척도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실제 모형에 활용될 때에는 응답자별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4점 척도 수준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분석모형으로 설정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5) 종속변수의 분포를 기준으로, 로짓 연결함수는 골고루 분포된 경우, 보완 log-log 연결함수는 높은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경우, 음의 log-log 연결함수는 낮은 범주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 프로빗 연결함수는 명백한 정규분포일 경우, cauchit 연결함수는 극단 수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김순귀 외, 2008).

IV. 분석 결과

4.1.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주관적 계층 평가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685로 계산되었다.

검증변수인 근린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 평가에 일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가 개인이 자신의 계층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심한 근린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계층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는 단순히 거주하는 근린 내부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주자 본인이 근린 내에서 저소득집적 지역에 살고 있는지, 고소득집적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심한 근린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근린 내에서 고소득집적 지역에 살고 있다면 주변과 비교하여 주관적 계층을 높게 평가하고, 근린 내에서 저소득집적 지역에 살고 있다면 주변과 비교하여 주관적 계층을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과적으로 근린 내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의 영향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근린 내에서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

리가 심할 때, 저소득집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심한 근린환경을 방지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계층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검증변수인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좀 더 넓은 공간 단위에서 근린 자체가 다른 근린과 소득 차원에서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그 근린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관적 계층위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었으며, 근린 내에 얼마나 다양한 소득계층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정도도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의 경우 p 유의확률이 0.159로 분석되어서 기준수치인 0.1에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주하는 근린이 외부 근린과 가지는 관계 측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근린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관적 계층위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근린끼리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주관적 계층 평가에 소득과 교육수준, 직업 변수가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분석의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득의 경우, 절대적 소득수준 변수와 소득만족도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주관적 소득만족도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변수에서도 참조변수인 생산·노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 사무직 등의 업종일수록 주관적 계층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위 변수에서도 임시·일용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주관적 계층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과 주택 소유 경향을 고려하여 구성한 주택 종류 변수와 자가 여부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이나 기타 주택 유형에 사는 사람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주관적 계층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였지만, 주요 관심사인 아파트 유형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성별과 연령 변수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직업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최종교육수준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은퇴 등의 이유로 직업적 지위와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세대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주관적 계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716	0.417	0.086*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885	0.629	0.159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1.043	3.265	0.749
개인특성	성별	0.395	0.207	0.056*
	연령	-0.021	0.012	0.093*
	결혼	-0.036	0.219	0.869
	전문대	0.629	0.357	0.078*
	4년제 대학 이상	0.837	0.309	0.007***
	전문·관리직	3.862	1.968	0.050**
	사무직	3.723	1.970	0.059*
	판매·서비스직	3.877	1.980	0.050**
	학생	3.986	2.008	0.047**
	주부	4.521	2.046	0.027**
	기타·미취업	4.311	2.014	0.032**
	정규직	0.712	0.357	0.046**
	자영업	0.291	0.471	0.536
	기타·해당없음	0.157	0.545	0.773
	종교 여부	0.031	0.169	0.854
	TV 시청	0.033	0.053	0.530
인터넷 사용	-0.002	0.035	0.960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1.393	0.321	0.000***
	소득400~600만 원	1.403	0.349	0.000***
	소득600만 원 이상	1.833	0.388	0.000***
	소득만족도	0.270	0.070	0.000***
	가족 수	0.003	0.092	0.971
	가족 세대수	0.383	0.160	0.017**
주택특성	아파트	0.217	0.208	0.299
	단독주택	-0.025	0.353	0.943
	오피스텔·기타	0.742	0.410	0.071*
	자가 여부	-0.113	0.181	0.531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582	0.370	0.116
상수	[주관적 계층 = 1]	8.129	3.733	0.029**
	[주관적 계층 = 2]	11.436	3.767	0.002***
Nagelkerke R^2		0.685		

주: * p<0.1, ** p<0.05, *** p<0.01

4.2.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사회계층구조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전체계층 모형 결과

‘사회계층구조’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115로 계산되었다.

검증변수인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 변수는 개인의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일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가 개인이 사회의 계층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심한 근린에 사는 사람일수록 사회의 계층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계층구조’ 변수의 구성을 생각해볼 때, 사회계층구조 변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정도가 심하고, 부모의 계층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 외에 나머지 소득 분리 변수인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의 공간 집적 정도만이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나머지 근린끼리의 집적 정도나 근린 내부의 소득수준 다양성은 거주민의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의 p 유의확률 값이 각각 0.110, 0.159로 분석되어 기준치인 0.1에 매우 근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근린끼리의 공간 집적이 심하거

나, 근린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수준에 치우쳐 있을 경우 그 근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자가 여부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계층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 모형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평균소득이 높은 근린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의 계층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사회계층구조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537	0.308	0.082*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739	0.462	0.110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3.529	2.508	0.159
개인특성	성별	-0.026	0.153	0.863
	연령	0.016	0.009	0.084*
	결혼	-0.142	0.165	0.387
	전문대	0.462	0.254	0.069*
	4년제 대학 이상	0.365	0.221	0.099*
	전문·관리직	-0.143	0.520	0.784
	사무직	0.050	0.519	0.923
	판매·서비스직	-0.094	0.555	0.865
	학생	1.016	0.654	0.120
	주부	0.428	0.670	0.523
	기타·미취업	0.174	0.622	0.780
	정규직	0.338	0.254	0.182
	자영업	0.334	0.325	0.304
	기타·해당없음	-0.087	0.404	0.830
	종교 여부	0.182	0.127	0.153
	TV 시청	-0.025	0.039	0.518
	인터넷 사용	0.008	0.026	0.763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234	0.232	0.313
	소득400~600만 원	-0.289	0.251	0.249
	소득600만 원 이상	-0.400	0.288	0.165
	소득만족도	0.114	0.052	0.030**
	가족 수	-0.063	0.069	0.359
	가족 세대수	0.088	0.119	0.463
주택특성	아파트	-0.183	0.152	0.229
	단독주택	-0.027	0.257	0.916
	오피스텔·기타	-0.396	0.304	0.192
	자가 여부	0.235	0.136	0.085*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686	0.279	0.014**
상수	[사회계층구조 = 1]	4.074	2.459	0.098*
	[사회계층구조 = 2]	5.471	2.461	0.026**
	[사회계층구조 = 3]	6.861	2.475	0.006***
Nagelkerke R^2		0.115		

주: * p<0.1, ** p<0.05, *** p<0.01

□ 계층분리 모형 결과

한편 개인의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t-test 분석과 층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사회계층구조 평가의 차이 분석 t-test 결과는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층에 비해서 중·상층일수록 사회의 계층구조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 주관적 계층별 사회계층구조 인식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변수	평균		t	p
	하층(n=80)	중·상층(n=277)		
사회계층구조	2.06	2.25	3.308	0.070*

주: * p<0.1, ** p<0.05, *** p<0.01

주관적 계층에 따라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층화분석 결과는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계층구조’ 하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531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교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 변수는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는 전체계층 모형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하층 모형에서는 전체계층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가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관

적인 하층민의 경우 거주하는 자치구 내의 행정동 간 소득수준의 집적 정도가 클수록 사회계층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도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내에서 행정동별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 정도만을 의미할 뿐, 해당 행정동이 저소득집적 지역인지 고소득 집적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행정동 간의 집적 정도가 심할 때, 저소득밀집 지역의 행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서는 결혼 여부, 4년제 대학 이상, 소득만족도, 아파트, 자가 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할수록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에 사는 하층민일수록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계층구조’ 중 ·상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168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검증변수인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 변수에서는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연령, 결혼 여부, 학생, 소득만족도, 가족 수, 근린평균소득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층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 변수가 개인의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하층민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4> 사회계층구조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3.896	1.530	0.011**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4.869	1.848	0.008***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7.117	12.891	0.581
개인특성	성별	-0.453	0.661	0.493
	연령	0.046	0.045	0.311
	결혼	1.810	0.879	0.039**
	전문대	0.952	0.829	0.251
	4년제 대학 이상	1.286	0.782	0.100*
	전문·관리직	-1.751	1.288	0.174
	사무직	-1.460	1.198	0.223
	판매·서비스직	-1.992	1.498	0.184
	학생	3.343	2.063	0.105
	주부	-2.033	2.303	0.377
	기타·미취업	3.269	2.315	0.158
	정규직	0.740	0.893	0.407
	자영업	-0.454	1.172	0.699
	기타·해당없음	-1.461	1.628	0.369
	종교 여부	0.041	0.605	0.946
	TV 시청	0.175	0.139	0.207
	인터넷 사용	0.120	0.129	0.353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874	0.726	0.228
	소득400~600만 원	-0.069	0.843	0.935
	소득만족도	0.716	0.242	0.003***
	가족 수	-0.180	0.310	0.561
	가족 세대수	0.611	0.544	0.261
주택특성	아파트	-2.692	0.779	0.001***
	단독주택	-1.001	1.048	0.339
	오피스텔·기타	-0.269	1.335	0.840
	자가 여부	1.745	0.644	0.007***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118	1.381	0.932
상수	[사회계층구조 = 1]	5.648	13.054	0.665
	[사회계층구조 = 2]	7.904	13.059	0.545
	[사회계층구조 = 3]	11.352	13.155	0.388
Nagelkerke R^2		0.531		

주: * p<0.1, ** p<0.05, *** p<0.01

<표 4-5> 사회계층구조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627	0.378	0.097*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315	0.578	0.586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3.364	2.935	0.252
개인특성	성별	0.091	0.188	0.630
	연령	0.038	0.011	0.001***
	결혼	-0.372	0.196	0.058*
	전문대	0.556	0.363	0.126
	4년제 대학 이상	0.394	0.327	0.228
	전문·관리직	0.224	0.469	0.633
	사무직	0.381	0.489	0.436
	판매·서비스직	0.878	0.542	0.105
	학생	1.285	0.471	0.006***
	주부	0.771	0.460	0.094*
	정규직	-0.047	0.363	0.898
	자영업	0.162	0.460	0.725
	기타·해당없음	0.053	0.534	0.921
	종교 여부	0.155	0.149	0.297
	TV 시청	-0.065	0.051	0.207
인터넷 사용	0.035	0.032	0.273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154	0.411	0.708
	소득400~600만 원	-0.082	0.416	0.843
	소득600만 원 이상	-0.053	0.441	0.905
	소득만족도	0.131	0.064	0.041**
	가족 수	-0.181	0.085	0.032**
	가족 세대수	-0.021	0.150	0.890
주택특성	아파트	-0.103	0.188	0.585
	단독주택	0.259	0.309	0.402
	오피스텔·기타	-0.358	0.388	0.357
	자가 여부	0.143	0.164	0.384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582	0.334	0.082*
상수	[사회계층구조 = 1]	5.132	2.964	0.083*
	[사회계층구조 = 2]	6.464	2.972	0.030**
	[사회계층구조 = 3]	9.185	2.994	0.002***
Nagelkerke R^2		0.168		

주: * p<0.1, ** p<0.05, *** p<0.01

4.3. 도시공간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가 개인의 타 계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4.3.1. 타 계층에 대한 신뢰 모형

□ 전체계층 모형 결과

‘타 계층 신뢰’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215로 계산되었다.

검증변수인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 중에서는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만이 개인이 가지는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린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 분포가 균등할수록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서 신뢰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주하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나, 거주하는 자치구 내 행정동 간의 소득수준이 집적된 정도는 거주민이 타 계층에 대해 가지는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통제변수에서는 결혼 여부, 직업, 정규직 여부, 종교 여부, TV 시청, 인터넷 사용, 가족 수, 오피스텔·기타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혼자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오피스텔이나 기타 주택에 거주할수록 타 계층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노무직에 비해 타 직업군의 사람들은 타 계층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타 계층 신뢰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153	0.355	0.665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295	0.532	0.580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5.802	2.926	0.047**
개인특성	성별	-0.317	0.178	0.075*
	연령	-0.006	0.011	0.600
	결혼	0.758	0.195	0.000***
	전문대	0.089	0.293	0.763
	4년제 대학 이상	0.199	0.254	0.434
	전문·관리직	-1.544	0.625	0.013**
	사무직	-2.288	0.632	0.000***
	판매·서비스직	-1.518	0.663	0.022**
	학생	-1.391	0.772	0.072*
	주부	-2.229	0.798	0.005***
	기타·미취업	-1.921	0.741	0.010***
	정규직	0.647	0.298	0.030**
	자영업	0.124	0.376	0.742
	기타·해당없음	0.257	0.463	0.578
	종교 여부	0.343	0.147	0.020**
	TV 시청	0.118	0.047	0.013**
	인터넷 사용	-0.061	0.031	0.047**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319	0.272	0.241
	소득400~600만 원	0.050	0.293	0.865
	소득600만 원 이상	0.425	0.336	0.206
	소득만족도	0.069	0.060	0.247
	가족 수	0.137	0.081	0.093*
	가족 세대수	-0.102	0.139	0.463
주택특성	아파트	0.118	0.176	0.501
	단독주택	-0.284	0.294	0.333
	오피스텔·기타	0.809	0.359	0.024**
	자가 여부	0.084	0.157	0.590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163	0.325	0.615
상수	[타 계층 신뢰 = 1]	1.080	2.858	0.706
	[타 계층 신뢰 = 2]	2.042	2.853	0.474
	[타 계층 신뢰 = 3]	4.680	2.859	0.102
Nagelkerke R^2		0.215		

주: * p<0.1, ** p<0.05, *** p<0.01

□ 계층분리 모형 결과

개인의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t-test 분석과 층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정도 차이 분석 t-test 결과는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층에 비해서 중·상층일수록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타 계층의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주관적 계층별 타 계층 신뢰 정도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변수	평균		t	p
	하층(n=80)	중·상층(n=277)		
타 계층 신뢰	2.95	3.12	3.279	0.071*

주: * p<0.1, ** p<0.05, *** p<0.01

주관적 계층별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층화분석 결과는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계층 신뢰’ 하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594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교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 변수는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계층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가 하층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우선 근린의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는 거주민이 타 계층에게 가지는 신뢰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

린 내에 다양한 교육수준의 사람이 거주할수록 주관적 하층민이 타 계층의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신뢰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린 내에서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타 계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일부 직업, 정규직, 근린평균소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하층민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근린에 거주할수록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사람일수록 타 계층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계층 신뢰’ 중·상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201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검증변수인 근린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결혼 여부, 판매·서비스직, 종교 여부, TV 시청 시간, 인터넷 사용, 오피스텔·기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층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개인이 타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신뢰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하층민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주관적 중·상층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8> 타 계층 신뢰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3.787	1.165	0.001***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1.510	1.227	0.219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24.349	9.936	0.014**
개인특성	성별	-1.446	0.522	0.006***
	연령	0.062	0.031	0.045**
	결혼	1.533	0.619	0.013**
	전문대	-0.578	0.581	0.320
	4년제 대학 이상	0.454	0.492	0.356
	전문·관리직	-2.675	0.967	0.006***
	사무직	-4.866	1.102	0.000***
	판매·서비스직	-3.933	1.168	0.001***
	학생	0.336	1.323	0.799
	주부	-3.919	1.643	0.017**
	기타·미취업	-3.062	1.692	0.070*
	정규직	1.750	0.634	0.006***
	자영업	-0.505	0.836	0.546
	기타·해당없음	-0.705	1.104	0.523
개인행태	종교 여부	-0.121	0.425	0.776
	TV 시청	0.004	0.101	0.965
	인터넷 사용	0.051	0.093	0.579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130	0.466	0.780
	소득400~600만 원	-0.856	0.574	0.136
	소득만족도	-0.080	0.151	0.596
	가족 수	0.154	0.229	0.502
	가족 세대수	0.099	0.382	0.795
주택특성	아파트	-0.120	0.488	0.806
	단독주택	-1.020	0.725	0.159
	오피스텔·기타	-0.120	0.774	0.877
	자가 여부	-0.264	0.449	0.556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1.718	0.994	0.084*
상수	[타 계층 신뢰 = 1]	18.187	9.529	0.056*
	[타 계층 신뢰 = 2]	18.875	9.536	0.048**
	[타 계층 신뢰 = 3]	22.143	9.686	0.022***
Nagelkerke R^2		0.594		

주: * p<0.1, ** p<0.05, *** p<0.01

<표 4-9> 타 계층 신뢰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812	0.664	0.222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124	1.032	0.904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6.055	5.301	0.253
개인특성	성별	-0.121	0.338	0.720
	연령	-0.024	0.020	0.230
	결혼	0.790	0.353	0.025**
	전문대	0.493	0.631	0.435
	4년제 대학 이상	0.396	0.566	0.484
	전문·관리직	1.474	0.849	0.083*
	사무직	0.564	0.881	0.522
	판매·서비스직	2.138	0.978	0.029**
	학생	0.013	0.837	0.988
	주부	-0.339	0.819	0.679
	정규직	0.388	0.653	0.553
	자영업	-0.034	0.830	0.968
	기타·해당없음	0.974	0.954	0.307
	종교 여부	0.607	0.272	0.026**
	TV 시청	0.236	0.092	0.011**
인터넷 사용	-0.107	0.057	0.060*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421	0.707	0.552
	소득400~600만 원	0.423	0.713	0.552
	소득600만 원 이상	0.826	0.765	0.280
	소득만족도	0.028	0.114	0.805
	가족 수	0.237	0.150	0.113
	가족 세대수	-0.165	0.260	0.528
주택특성	아파트	0.328	0.336	0.329
	단독주택	-0.309	0.567	0.586
	오피스텔·기타	1.665	0.687	0.015**
	자가 여부	0.079	0.296	0.788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102	0.592	0.864
상수	[타 계층 신뢰 = 1]	3.905	5.286	0.460
	[타 계층 신뢰 = 2]	5.123	5.283	0.332
	[타 계층 신뢰 = 3]	8.884	5.307	0.094*
Nagelkerke R^2		0.201		

주: * p<0.1, ** p<0.05, *** p<0.01

4.3.2. 타 계층에 대한 관용 모형

□ 전체계층 모형 결과

‘타 계층 관용’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113으로 계산되었다.

검증변수인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는 개인이 가지는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근린 내부의 소득수준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도, 거주하는 자치구 내 행정동 간의 소득수준이 집적된 정도, 거주하는 근린 내부 거주민들의 교육수준의 균등 정도는 거주민이 타 계층에 대해 가지는 관용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도출하지 못했다.

기타 통제변수에서는 4년제 대학 이상, 종교 여부, 소득만족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타 계층 신뢰’ 모형과도 반대되는 결과이다.

<표 4-10> 타 계층 관용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009	0.301	0.976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400	0.456	0.381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0.392	2.448	0.873
개인특성	성별	-0.145	0.150	0.334
	연령	0.011	0.009	0.211
	결혼	-0.020	0.161	0.903
	전문대	0.231	0.256	0.367
	4년제 대학 이상	0.684	0.226	0.002***
	전문·관리직	0.064	0.543	0.906
	사무직	0.100	0.543	0.854
	판매·서비스직	0.421	0.573	0.463
	학생	0.398	0.662	0.548
	주부	0.044	0.681	0.948
	기타·미취업	-0.052	0.639	0.936
	정규직	0.058	0.250	0.815
	자영업	0.146	0.321	0.649
	기타·해당없음	0.220	0.395	0.577
	종교 여부	-0.276	0.125	0.027**
	TV 시청	0.013	0.039	0.745
인터넷 사용	-0.040	0.026	0.131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186	0.229	0.417
	소득400~600만 원	-0.287	0.248	0.248
	소득600만 원 이상	-0.071	0.281	0.800
	소득만족도	0.109	0.051	0.032**
	가족 수	0.016	0.068	0.812
	가족 세대수	-0.101	0.118	0.393
주택특성	아파트	0.184	0.150	0.218
	단독주택	-0.046	0.254	0.854
	오피스텔·기타	0.124	0.297	0.677
	자가 여부	-0.051	0.133	0.703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085	0.270	0.752
상수	[타 계층 관용 = 1]	0.066	2.398	0.978
	[타 계층 관용 = 2]	0.970	2.399	0.686
	[타 계층 관용 = 3]	2.395	2.401	0.319
Nagelkerke R^2		0.113		

주: * p<0.1, ** p<0.05, *** p<0.01

□ 계층분리 모형 결과

개인의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t-test 분석과 층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정도 차이 분석 t-test 결과는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층에 비해서 중·상층일수록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타 계층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주관적 계층별 타 계층 관용 정도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변수	평균		t	p
	하층(n=80)	중·상층(n=277)		
타 계층 관용	2.51	2.77	4.892	0.028**

주: * p<0.1, ** p<0.05, *** p<0.01

주관적 계층별로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타 계층에 대한 관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층화분석 결과는 <표 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계층 관용’ 하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446으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교하여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검증변수인 근린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변수는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층 모형에서는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변수와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었는데, ‘타 계층 신뢰’ 모형에서처럼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거주민이 타 계층에게 가지는 관용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

린 내에 다양한 교육수준의 사람이 거주할수록 주관적 하층민이 타 계층의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선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린 내에서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져 타 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4년제 대학 이상, 소득 400~600만 원, 소득만족도, 가족 수, 오피스텔·기타, 자가 여부, 근린평균소득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절대적인 소득이 높은 주관적 하층민의 경우 타 계층 사람에 대한 관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관용 정도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타 계층 관용’ 중·상층 모형의 유사 R^2 (Pseudo R-Square) 값인 Nagelkerke R^2 값은 0.148로 계산되어 전체계층 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검증변수인 근린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4년제 대학졸업 이상, TV 시청, 인터넷 사용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층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근린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변수가 개인이 타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타 계층 신뢰’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하층민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주관적 중·상층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도출되지 않았다.

<표 4-12> 타 계층 관용 하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2.113	0.887	0.017**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861	1.104	0.435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14.399	7.958	0.070*
개인특성	성별	0.953	0.431	0.027**
	연령	0.058	0.027	0.030**
	결혼	-1.216	0.514	0.018**
	전문대	-0.089	0.504	0.859
	4년제 대학 이상	0.828	0.449	0.065*
	전문·관리직	0.372	0.760	0.624
	사무직	0.527	0.721	0.465
	판매·서비스직	-0.358	0.884	0.686
	학생	1.067	1.142	0.350
	주부	0.457	1.323	0.730
	기타·미취업	-2.045	1.394	0.143
	정규직	0.447	0.514	0.384
	자영업	0.573	0.709	0.419
	기타·해당없음	0.313	0.936	0.738
	종교 여부	-0.564	0.370	0.127
	TV 시청	-0.153	0.093	0.102
인터넷 사용	-0.136	0.086	0.114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370	0.422	0.381
	소득400~600만 원	-1.620	0.546	0.003***
	소득만족도	0.352	0.136	0.009***
	가족 수	0.789	0.218	0.000***
	가족 세대수	-0.222	0.323	0.493
주택특성	아파트	0.661	0.432	0.126
	단독주택	0.442	0.629	0.482
	오피스텔·기타	1.727	0.790	0.029**
	자가 여부	-0.812	0.397	0.041**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2.520	0.884	0.004***
상수	[타 계층 관용 = 1]	20.138	8.143	0.013**
	[타 계층 관용 = 2]	21.929	8.219	0.008***
	[타 계층 관용 = 3]	23.236	8.248	0.005***
Nagelkerke R^2		0.446		

주: * p<0.1, ** p<0.05, *** p<0.01

<표 4-13> 타 계층 관용 중·상층 모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β	표준오차	p 유의확률
소득분리	근린 내 소득집적 정도	0.065	0.586	0.912
	근린 외 소득집적 정도	0.322	0.912	0.724
	근린 내 교육균등 정도	2.263	4.665	0.628
개인특성	성별	-0.351	0.299	0.241
	연령	-0.001	0.017	0.956
	결혼	0.500	0.307	0.104
	전문대	-0.116	0.551	0.833
	4년제 대학 이상	1.087	0.495	0.028**
	전문·관리직	-0.346	0.747	0.643
	사무직	-0.212	0.779	0.785
	판매·서비스직	0.861	0.871	0.323
	학생	0.081	0.731	0.912
	주부	-0.248	0.715	0.729
	정규직	0.487	0.569	0.392
	자영업	0.761	0.730	0.298
	기타·해당없음	0.499	0.848	0.556
	종교 여부	-0.323	0.237	0.172
	TV 시청	0.166	0.082	0.042**
인터넷 사용	-0.124	0.050	0.014**	
가구특성	소득200~400만 원	-0.767	0.636	0.228
	소득400~600만 원	-0.834	0.642	0.194
	소득600만 원 이상	-0.749	0.686	0.275
	소득만족도	0.121	0.101	0.234
	가족 수	-0.045	0.131	0.733
	가족 세대수	-0.238	0.230	0.301
주택특성	아파트	0.373	0.296	0.208
	단독주택	0.074	0.497	0.882
	오피스텔·기타	0.095	0.594	0.873
	자가 여부	-0.042	0.261	0.873
근린특성	근린평균소득	-0.129	0.525	0.806
상수	[타 계층 관용 = 1]	-0.843	4.671	0.857
	[타 계층 관용 = 2]	0.754	4.670	0.872
	[타 계층 관용 = 3]	2.905	4.673	0.534
Nagelkerke R^2		0.148		

주: * p<0.1, ** p<0.05, *** p<0.01

4.4. 소결

이 장에서는 실제로 도시공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주관적 계층’,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4가지였으며 ‘주관적 계층’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주관적 계층’ 변수를 기준으로 t-test 및 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주관적 계층’ 모형과 ‘사회계층구조’ 모형에서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거주민의 주관적 계층 평가와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사회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타 계층 신뢰’ 모형에서는 근린 내에 다양한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거주할수록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계층 관용’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과 중·상층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층화분석을 통해서, 도시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우선 ‘주관적 계층’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회통합의식 종속변수에 대해서 수행한 t-test 결과 개인의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평가, 타 계층에 대한 신뢰와 관용 정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민의 주관적 계층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사회통합의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린 내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은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근린 내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이 궁극적으로는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측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층화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들이 하층 모형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계층구조’ 모형에서는 전체계층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던 ‘근린 외 소득 집적’ 변수도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하층민에게는 거주하는 근린 내부의 소득에 따른 공간 집적뿐만 아니라 근린 자체가 다른 근린과의 관계 속에서 소득수준 차원에서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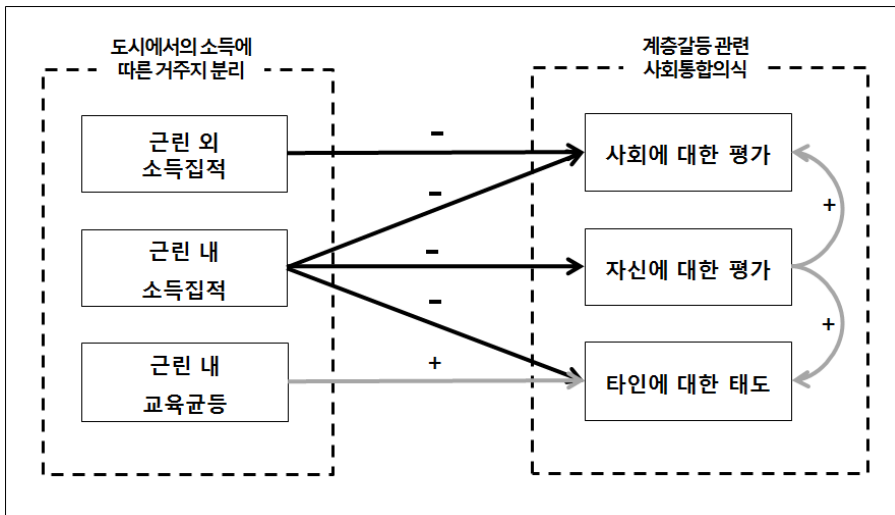
‘타 계층 신뢰’ 모형과 ‘타 계층 관용’ 모형의 층화분석 결과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두 모형 모두 하층 모형에서는 ‘근린 외 소득 집적 정도’ 변수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린 내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이 타 계층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근린 내부의 교육수준 균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을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설정했음을 감안할 때, 근린 내에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거주할수록 하층민이 가지는 타 계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계층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려고 한 사회적 혼합 정책의 목적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하는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주관적 하층민에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14>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합

	주관적 계층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전체	하층	중상층	전체	하층	중상층	전체	하층	중상층
근린 내 소득 집적	-	-	-	-		-			-	
근린 외 소득 집적			-							
근린 내 교육균등					+	+			+	

주: + 긍정적 영향 / - 부정적 영향



<그림 4-1>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합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린공간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거주지 분리가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의 실질적인 원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 분리와 근린효과, 계층의식에 대한 이론연구를 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가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계층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관적 하층민이 받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연구의 중심 가설은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개인의 사회통합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은 주관적 하층민에게 특히 중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와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개념정리가 이루어졌다.

먼저 거주지 분리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후, 그로 인한 영향을 사회적 배제와 근린효과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근린효과 이론에서는 도시공간의 분리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근린의 내·외부 특성이 모두 거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여러 측면의 분리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서 이론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득수준 차원에서의 공간적 분리는 기존의 인종이나 민족 등의 공간적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는 반영할 수 없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를 측정하는 공간 지표와, 소득수준의 편차 및 소득계층 분포의 균등도를 측정하는 비공간 지표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표를 일부 활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측정해본 결과,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서울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분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혼합의 개념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한편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사회통합의식과 관련해서도 개념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관심사인 계층갈등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우선 계층갈등의 개념 파악을 위해서 계층 및 계층의식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개념과 사회통합 측정 지표를 정리하여,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 측정 지표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정리한 세 가지 차원의 사회통합의식은 자신의 주관적 계층위치를 나타내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사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나 관용 등을 나타내는 ‘타인에 대한 태도’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본으로 실제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의 틀을 구

성하였는데, 연구의 대상지와 분석자료, 주요 변수의 측정 방식, 구체적인 분석모형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연구 가설의 핵심이 되는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와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소득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시공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관적 계층’, ‘사회계층구조’, ‘타 계층 신뢰’, ‘타 계층 관용’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주관적 계층’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주관적 계층’ 변수를 기준으로 t-test 및 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 모형과 ‘사회계층구조’ 모형에서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거주민의 주관적 계층 평가와 사회계층구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계층 신뢰’ 모형에서는 근린 내부 주민의 교육수준 균등 정도가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타 계층 관용’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개인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과 중상층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t-test 결과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의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 주관적 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한 층화분석 결과에서는 검증변수들이 하층 모형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는 특히 주관적 하층민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주관적 하층민에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 의의와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도시민의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장하여 서로를 단절시키고 다양한 사회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계층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주지의 분리가 촉발시킬 수 있는 사회갈등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지리학 분야에서는 공간적 분리의 측정 방식이나 그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적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하지만, 그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이나 도시사회학 분야에서는 주로 거주지 분리 현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도시계획이나 주택연구, 사회학은 도시의 공간적 분리가 거주민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혼합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가 사회갈등, 특히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배제나 사회적 혼합이 기본적으로 거주민이 가지는 네트워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계층갈등 차원에서 거주민들의 심리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거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수준을 대상으로 그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공간정책에 함의를 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에 대한 측정 방식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각각의 분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것이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과는, 신규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기존 도시의 개량을 통한 변화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에 정책적 의미를 줄 수 있다.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이 거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단독 및 다세대 위주의 지역에서의 재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재개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근린 내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도시설계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근린 외부에서의 소득 집적이 거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는, 좀 더 거시적으로 재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 외에 다양한 소득계층의 균등 정도 측면의 결과에서도 도시계획·설계 차원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에도 공동주택 단지의 사회적 혼합 정책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공간정책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수준의 균등도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임대주택의 입지나 공급량을 결정하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요한 근거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부 전체계층 대상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 이는 종속변수로 활용된 개인의 사회통합의식 변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강신욱 외(2012)에 의하면 사회적 결속력이나 신뢰의 정도와 같은 주관적 의식 변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특정 사건이 개입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정 모형에서 낮은 설명력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료의 한계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따른 분리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여부, 근린의 소득 혼합도, 근린의 주택 혼합도를 기준으로 통합 지표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지표와 의미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검증변수로 사용된 분리 지표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여 설문자료를 재구성할 경우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 내용으로 시계열 자료가 구성이 된다면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주관적 하층에 초점을 맞추어 근린 내·외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계층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층뿐 아니라 중·상층에 대해서도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 규모를 근린 내·외부로 설정하였지만, 더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리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분리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신욱·노대명·우선희 (2012)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고은정 (2014) “근린환경이 사회적 다양성과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현근 (2007)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년 지방선거·2004년 총선·2002년 대선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5-30.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파주: 집문당.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2): 241-268.

김순귀·정동빈·박영술 (2008)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한나래.

김승남·김재홍 (2013) “근린의 사회적 혼합 수준과 거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및 도움수혜 경험의 실증적 관계”, 「국토연구」 76: 93-112.

김양수·서혜석 (2007) 「주거지 계층혼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한울.

김위정 (2003)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자영·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김주진 (2008) "사회적 혼합이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은 (2012) “아파트 단지 물리적 폐쇄성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 주택가격과 근린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원 (2007) “빈곤 청소년 하위계급 형성과정 : 사회적 고립과 빈곤 재생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채윤 (1975) “사회계층개념의 연구”, 『성곡논총』 6: 247-266.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0: 6-19.

노대명·강신욱·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 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경선 (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관민·송명규·이경진 (2009)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증연구 : 용인시 동백지구를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2(3): 107-131.

박미나 (2006)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배순석·천현숙·진정수·전성제·김승종 외 (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서광민 (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득·교육수준·직업·소득 만족도·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발표자료』.

서문기 (2013)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진단과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22(3): 27-43.

서수정 · 김주진 · 정경일 · 설정임 (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대한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선주형 (2004) “사회계층간 거주공간 분화 양상과 사회적 함의 : 서울시 소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승현아 (1996) “서울시의 자가분포패턴의 변화와 자가상승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승호 · 김승남 · 안건혁 · 권영상 (2014) “도시 내 소득의 공간적 양극화가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도시설계」 15(3): 19-32.

오혁제 (2009) “중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복 (2010)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은지 (2006)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거선택행태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보람 (2013.11.12) “국민 10명 중 9명 "사회 이념갈등 심각"〈경실련〉”, 연합뉴스 기사.

윤인진 (1998)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 형태와 사회적 함의”, 「서울학연구」 10: 229-270.

윤인진 · 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고급 여가활용의 매개효과분석”, 「도시행정학보」 21(2): 153-185.

이기석 (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128-172.

-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111-140.
- 이상일 (2007)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I): 공간 분리성 측도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42(4): 616-631.
- 이숙임 (1987) “서울시 주거지 공간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원·이우종 (2007)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연구”, 『국토계획』 42(5): 81-94.
- 임상규 (2012)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임석희·이용우 (2002)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 서울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270-279.
- 임주호 (2006) “도시철도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토지이용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상수 (1996) “한국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 49: 180-212.
- 전상인 (2008) “앵그리(angry) 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철학과 현실』 76: 30-40.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차미숙·임은선·김혜승·윤윤정·이현주·강신욱·전지현·박수진 외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협동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 차종천 (1995)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 『한국사회론: 제도와 사상』 663-691.
- 차종천 (2004)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및 공정성간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191-195.

천현숙·강미나·서수정·임현성·서종균·김윤이 (2009)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최은영 (2004)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성규·서종녀 (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159-181.

하억종 (2012) “사회계층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옥자 (2005)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간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주연 (2002) “도시 공간 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연구: 주택 가격 변화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5(1): 65-81.

홍두승 (1989) “직업과 계급 :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 23-45.

홍두승 (1991) “계층의 공간적 분화 1975-1985: 서울시의 경우”,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567-583.

홍두승·김미희 (1988) “도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485-533.

홍성조·안건혁 (2011) “일반적 장이론에 의한 서울의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5): 153-165.

홍영림 (1993) “서울시 강남지역의 개발과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은주 (2008) “도시 공간의 교육환경 격차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3): 205-222.

황경상 (2012.04.26) “양극화 갈등 넘어 사회통합은 ‘복지’를 통해 달성 될 것”, 경향신문 기사.

- Abe, A. (2010) "Social Exclusion and Earlier Disadvantages: An Empirical Stud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3(1): 5-30.
- Andrews, H. (1986) "The Effects of Neighbourhood Social Mix on Adolescents' Social Network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Urban Studies*, 23: 501-517.
- Arthurson, K. (2002) "Creating Inclusive Communities through Balancing Social Mix: A Critical Relationship or Tenuous Link?", *Urban Policy and Research*, 20(3): 245-261.
- Arthurson, K. (2008) "Australian Public Housing and the Diverse Histories of Social Mix", *Journal of Urban History*, 34(3): 484-501.
- Bacque, M., Fijalkow, Y., Launay, L. and Vermeersch, S. (2011) "Social Mix Policies in Paris: Discourses, Policies and Social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5(2): 256-273.
- Barnes, M. (2005) *Social Exclusion in Great Brita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EU*, Aldershot: Ashgate.
- Bayram, N., Bilgel, F. and Bilgel, N. (2012)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An Empirical Study from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1): 109-120.
- Blanc, M. (2010) "The Impact of Social Mix Policies in France", *Housing Studies*, 25(2): 257-272.
- Bolt, G., Burgers, J. and Van Kempen, R. (1998) "On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atial location; Spatial Segregation and Social Inclusion", *Netherland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13(1): 83-95.
- Britten, N. (1984) "Class Imagery in a National Sample of Woman and Ma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5: 406-434.
- Buck, N. (2001) "Identifying Neighbourhood Effects on Social Exclusion", *Urban Studies*, 38(12): 2251-2275.

- Burchardt, T., Le Grand, J. and Piachaud, C.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Byrne, D. (1999) *Social Exclus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han, J., To, H. and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273-302.
- Chaskin, J. (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7-548.
- Cole, I. and Goodchild, B. (2001) "Social Mix and the 'Balanced Community' in British Housing Policy - a Tale of Two Epochs", *Geojournal*, 51: 351-360.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 Friedrichs, J., Galster, G. and Musterd, S. (2003) "Neighbourhood Effects on social Opportunities: The European and American Research and Policy Context", *Housing Studies*, 18(6): 797-806.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alster, G., Andersson, R. and Musterd, S. (2010) "Who Is Affected by Neighbourhood Income Mix? Gender, Age, Family, Employment and Income Differences", *Urban Studies*, 47(14): 2915-2944.
- Gibbard, H. (1941) "The Status Factor in Residential Success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6(6): 835-842.
- Gingrich, L. (2008) "Social Exclusion and Double Jeopardy: The Management of Lone Mothers in the Market-State Social Field",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2(4): 379-395.
- Granovetter, M.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ackman, M. and Jackman, R. (1973) "An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69-582.

Jackman, M. and Jackman, R. (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acquier, C. (2001) "Urban Fragmentation and Revitalization Policies in France: A New Urban Governance in the Making", Musterd, S. and Andersson, R. (2005)에서 재인용.

Kearns, A. and Parkinson, M. (2001) "The Significance of Neighbourhood", *Urban Studies*, 38(12): 2103-2110.

Kleinhans, R. (2004) "Social Implications of Housing Diversification in Urban Renewal: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19(4): 367-390.

Levitas, R.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London: Macmillan.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and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Lopreato, J. and Hazelrigg, L. (1972) *Class, Conflict and Mobility*, New York: Intext.

Massey, D. and Denton, N.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Moffatt, S., Glasgow, N. (2009) "How Useful is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When Applied to Rural Ol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gional Studies*, 43(10): 1291-1303.

Musterd, S., Andersson, R. (2005) "Housing Mix, Social Mix, and Social

Opportunities", *Urban Affairs Review*, 40(6): 761-790.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Ostendorf, W., Musterd, S. and De Vos, S. (2001) "Social Mix and the Neighbourhood Effect. Policy Ambitions and Empirical Evidence.", *Housing Studies*, 16(3): 371-380.

Parkinson, M. (1998) *Combating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Area-based Programmes in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Pierson, J. (2010)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Reardon, S. (2011) *Measures of Income Segregation*, Stanford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Robson, B., Parkinson, M., Boddy, M. and MacLennan, D. (2000) *The State of English Cities*, London.

Rose, D. (2004) "Discourses and Experiences of Social Mix in Gentrifying Neighbourhoods: A Montreal Case study",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2): 278-316.

Ross, N., Houle, C., Dunn, J. and Aye, M. (2004) "Dimensions and Dynamics of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in Urban Canada, 1991-1996", *The Canadian Geographer*, 48(4): 433-445.

Sarkissian, W. (1976)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Urban Studies*, 13(3): 231-246.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Simon, P., Chafi, M., Tissot, S. and Kirszbaum, T. (2001) *Les Discrimination Raciales et Ethniques Dans L'accès au Logement Social*,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Rose (2004)에서 재인용.

Social Exclusion Unit (2001) *Preventing social exclusion*, London: Social Exclusion Unit.

- Tuner, J. (1984) *Societal Stratifi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n Beckhoven, E. and Van Kempen, R. (2003) "Social Effects of Urban Restructuring: A Case Study in Amsterdam and Utrecht, the Netherlands", *Housing Studies*, 18(6): 853-875.
- Van Kempen, R. and Bolt, G. (2009) "Social Cohesion, Social Mix, and Urba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4: 457-475.
- Vanneman, R. (1980) "U.S. and British Perceptions of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769-790.
- Vanneman, R. and Pampel, F. (197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and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422-437.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 Watson, T. (2009) "Inequality and the Measurement of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in American Neighborhood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5(3): 820-844.
- Watt, P. and Jacobs, K. (2000) "Discourses of social exclusion : An Analysis of *Bringing Britain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Housing, Theory and Society*, 17(1): 14-26.
- Wilson, W.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oon, J. and Seok, H. (1996)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ocial Status in Korea: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2): 333-354.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연구실에서는 도시의 환경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을 통하여 도시의 거주민들이 느끼는 주변 거주환경과 사회자본, 사회통합의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의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모든 응답 사항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뿐,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3. 12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연구실
양승호 (02-880-7374)

사전질문

1. 귀하가 거주하시고 계신 집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시 ()구 ()동

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생산직

⑦ 단순 노무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미취업 ⑪ 기타

▶ ⑧ 일 경우 4번 문항으로 가세요. ⑨, ⑩ 일 경우 A1번 문항으로 가세요.

3.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영업주

(4인 이상) ⑤ 영세 자영업주(4인 이하) ⑥ 무급 가족종사자 ⑦ 기타

4. 귀하의 직장이나 학교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시 ()구 ()동

Part A. 거주지 환경 및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조사

A1. 귀하의 동네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

A2. 귀하의 이웃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이웃의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0%	0%~25%	25%~50%	50%~75%	75~100%	100%
A2-1. 소득계층이 비슷한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A2-2. 학력이 비슷한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A2-3. 연령대가 비슷한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A3. 귀하께서는 이웃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까?

- ① 전혀 안 함 ② 1달에 1번 ③ 보름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1주일에 2~3번
⑥ 거의 매일

A4. 귀하께서는 당신의 이웃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완전 불신 ② 불신 ③ 조금 불신 ④ 보통 ⑤ 조금 신뢰 ⑥ 신뢰
⑦ 매우 신뢰

A5. 귀하의 동네 이외의 지역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이웃, 친구, 동료)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

A6. 귀하의 현재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얼마입니까?

서울시 지역 전체 ()년 / 거주하고 있는 구 전체 ()년 /
거주 동 전체 ()년

A7. 귀하께서는 현 거주 주택 및 동구 및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A7-1. 현 거주 주택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7-2.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7-3. 우리 구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7-4. 서울시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8.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A8-1. 우리 단지나 주택 주변의 일이 곧 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8-2. 우리 동의 일이 곧 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8-3. 우리 구의 일이 곧 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8-4. 서울시의 일이 곧 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8-5. 국가의 일이 곧 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9. 귀하께서는 거주지 주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A9-1.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소득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9-2.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9-3.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가격과 종류의 주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9-4. 우리 동네는 경제적으로 매우 쇠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10.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매체사용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10-1. TV 시청시간 ()시간 A10-2. 인터넷 사용시간 ()시간
 A10-3. 신문 읽는 시간 ()시간

Part B. 계층의식에 대한 인식 조사

B1.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계층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하 ② 하상 ③ 중하 ④ 중상 ⑤ 상하 ⑥ 상상

B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균등분포 ② 다이아몬드 형태 ③ 피라미드 형태 ④ 역 피라미드 형태
⑤ 양극화 형태

B3.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B3-1.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정도는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3-2.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계층상승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3-3. 부모의 계층이 자식세대로 대물림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B4-1. 고소득층의 성공은 노력을 통한 성취이며 존경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2. 낮은 소득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3. 소득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4. 소득이 다른 계층과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5. 소득이 다른 계층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6. 다양한 소득이 함께 살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혼합 정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7. 거주지 주변에 임대주택 단지가 생겨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C.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조사

C1.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이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조금 불만족 ④ 보통 ⑤ 조금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C2.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C2-1.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2.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평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3.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4. 교육과 취업기회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5. 경찰력 및 법 집행이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6. 언론이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7. 조세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매우 그러함						
C3-1.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2.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3. 연령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4. 나와 다른 조건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5. 나와 다른 조건의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6. 타인의 잘못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7. 법을 지키고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8. 언제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9. 살아오면서 소득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10. 살아오면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11. 살아오면서 직업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D. 개인의 기본 정보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세

D3. 귀하의 혼인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D4.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 ⑤ 4년제 대학
⑥ 대학원 이상

D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천주교 ③ 개신교 ④ 기타 ⑤ 무교

D6. 귀하의 가정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D7. 현재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없음 / 미취학 ()명 / 초등학생 ()명 / 중학생 ()명 /
고등학생 ()명 / 대학생 이상 ()명

D8. 귀하의 가구는 근로소득 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외벌이 ② 맞벌이 ③ 없음 ④ 기타

D9. 귀하 가구의 월 평균소득(세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소득은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금융소득(이자),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D10. 귀하 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조금 불만족 ④ 보통 ⑤ 조금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D11. 귀하 가구의 총 자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자산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현금자산 등을 모두 포함]

- ① 1억원 미만 ② 1억~2억원 미만 ③ 2억~3억원 미만 ④ 3억~5억원 미만
⑤ 5억~7억원 미만 ⑥ 7억~10억원 미만 ⑦ 10억~15억원 미만 ⑧ 15억원 이상

D12. 귀하 가구의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조금 불만족 ④ 보통 ⑤ 조금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D13. 귀하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증손자·증손녀 ⑥ 기타

D14. 귀하의 가구는 현재 몇 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1대 ② 2대 ③ 3대 ④ 4대

D15. 귀하께서 거주하시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다가구 ④ 단독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

D16. 귀하께서 거주하시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
on Residents' Sense of Social Cohesion

Yang, Seung Ho

A DISSERTATION
IN
URBAN DESIGN

Presen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Young-Sa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4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 on Residents' Sense of Social Cohesion

Yang, Seung Ho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crisis paired with globalization increases the need for social cohesion in Korean society however, Koreans experiencing increasing social conflict. In particular, class conflict has become one of the main problems, and Korean society is in urgent need of measures to alleviate this. Under the premise that housing and residential areas symbolically represent the hierarchy and income levels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m, this study assumes that spatial segregation in the city has a negative impact on class conflict. From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s on the class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used education as a

proxy for income levels, shows that there is spatial clustering of income levels in Seoul.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come segregation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social cohesion by causing social exclusion. Social-mixing policies are trying to address this segregation however, this must be preceded by social cohesion and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segregation in order for this policy to be successful.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on urban residential areas and class conflict, this study identifies and measures three explanatory variables the evenness of the residents' categorized income levels, and income variance in particular regions which are aspatial variable that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location pattern of the space. The variable measured the degree of spatial autocorrelation of income is spatial variable that considers the location pattern of the space.

The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s' sense of social cohesion in terms of class conflict were used to identify four 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individual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class structure of society, trust, and tolerance of people from other classe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survey data, shows that there are negative impa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s on residents' sense of social cohesion. More specifically, residents living in a neighborhood with a high degree of spatial clustering of income levels, has low levels for all

of the dependent variables. The more eve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a neighborhood, the more trust and tolerance people will have for residents from other classes.

The stratified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shows that income segregation has strong effects, particularly in subjective lower class. It was also confirmed that raising individuals' subjective clas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with high subjective class have a greater sense of social cohe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provide empirical verification that income segregation reduces social cohesion and creates the possibility for social conflict. Such discussions have largely been theoretical until now. This study also touches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space, by showing that spatial clustering of the income should be taken seriously, while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e current social mixing policy.

Keywords: Income Segregation, Sense of Social Cohesion, Social Exclusion, Social Mix

Student Number: 2009-20950